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전기문 변화 양상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성 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전기문 변화 양상 연구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성 은

인 준 서

김성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살펴본 결과, 전기문에는 ‘국가를 위한 국민 양성’을 내세운 국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교육과정일수록 직접적으로 나타났으며, 제7차 교육과정으로 올수록 조금씩 약화되었다.

그러던 중,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과거의 경우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널리 존경받는 등 유명한 인물들에 관한 전기문이 수록되었으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등 익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전기문이 수록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학습 활동을 통해 전기문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과거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던 도구에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춘 ‘자료’로의 전환을 꾀한다.

본고에서는 전기문의 활용 양상을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에 근거하여 크게 ‘글쓰기’, ‘올바른 언어 사용’, ‘설득의 기술’,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활용 방안들은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이전과는 달리 전기문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기문이 수록된 교과서 33권 중 무려 20권의 교과서가 ‘글쓰기’를 활용한 전기문 학습을 추구하는 등 글쓰기 외의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글을 쓰는 활동 외에

‘올바른 언어 사용’, ‘설득의 기술’,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 등 기존의 활용 방안들을 보다 활발히 활용하여야 한다. 혹은 연극과 전기문을 접목하여 위인의 입장에서 삶을 관조해보거나 위인의 일생을 게임 스토리로 각색하여 보는 등 새로운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학습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범위와 방법	9
II. 교육과정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분석	12
1. 전기문의 기본 개념 및 특성	12
2. 전기문의 변화 양상	15
1)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	16
2) 개인의 가치 있는 경험	53
3. 전기문에 반영된 이데올로기	63
1) 애국·애족의 국가주의 발현	64
2) 이데올로기의 ‘도구’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로의 전환	78
III. 제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활용 방안	81
1. 글쓰기를 통한 삶의 성찰	82
1)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85
2) 자서전 쓰기	101
2. 올바른 언어 사용 학습	124
1) 언어의 소중함과 문법지식 익히기	125
2)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 알기	130
3. 설득의 기술 훈련	135

4. 사회 · 문화적 맥락 인식	141
1) 가치관 비교	142
2) 시대 및 사회 상황 파악	149

IV. 결론	159
--------------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18
<표 2> 성향에 따른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20
<표 3>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23
<표 4> 성향에 따른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27
<표 5>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28
<표 6> 성향에 따른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32
<표 7>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34
<표 8> 성향에 따른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35
<표 9>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39
<표 10> 성향에 따른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43
<표 11>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44
<표 12> 성향에 따른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45
<표 13>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47
<표 14> 성향에 따른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47
<표 15>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48
<표 16> 성향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49
<표 17>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56
<표 18>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56
<표 19>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57
<표 20>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57
<표 21> ‘금성(윤) 2-1’에 수록된 전기문 관련 학습 목표	102

<그림 차례>

그림 1	50
------------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위인(偉人)’이란 표준국어대사전¹⁾에 따르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훌륭한’이란 ‘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를 뜻하는 형용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정의라서 위인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하다는 기준은 저마다 다른 것이므로 ‘위인’이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로 ‘위인전’을 통해 접하는 위인들 모두 실존했거나 현재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존했거나 실존하는 인물 중 어떤 인물들을 위인으로 선정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위인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인을 가리는 기준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소개된 ‘위인’들은 실제로 존재했거나 현재 생존해있는 인물이며 교과서가 만

1)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사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 나오기 전에는 민간 출판사나 대학 연구소가 한국어 사전 편찬 사업을 주도해 왔으나, 기존 한국어 사전들이 표제어 표기가 불일치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였다. 국가에서 편찬을 하는 까닭에 수정이나 새로운 말의 등재 등이 민간 사전에 비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국립국어원은 기존부터 표준국어대사전 웹 서비스를 하였고, 2008년 10월 9일 한글날에 개정판이 나옴과 동시에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웹 서비스하고 있다. 아직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개정판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종이 사전은 따로 출간하지 않아서, 개정판은 오직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다.

들어질 당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규합되었다. 특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의 ‘위인’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큼 널리 알려졌으며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 국가나 민족, 혹은 이웃을 위해 업적을 남겼거나 특정한 분야에서 남들과 차별된 업적을 달성한 인물이다. 동시에 타인의 모범이 되어 학습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수년간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수록되면서 정전의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교과서에 소개된 ‘위인’이란 ‘1) 실존하거나 실존했다, 2) 국가나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을 잘 드러낸다, 3)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업적을 쌓아왔다, 4) 널리 알려 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인’을 선정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주로 ‘위인’을 전기문(傳記文) 형식을 통해 다루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기문’이라 하면 위인을 다룬 글로 통용되므로 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기문이란 뛰어난 인물의 업적과 삶을 적은 것으로서,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상황, 관습,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인물의 사고방식, 가치관, 교훈을 드러내는 글이라고 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문은 학습자들의 가치관 형성 및 자아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학습자들은 전기문을 통해 위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세 등 올바른 인성과 삶의 지혜를 함양할 수 있다. 이는 현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을 전기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처럼 전기문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 읽기 · 듣기 · 쓰기 · 문법 · 문학’ 등 국어 교과서의 여섯 영역에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어 그 교육적 활용 가치가 크다.

때론 ‘국어’의 영역을 넘어서 타교과와의 연계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학습자들의 경우 위인전에 소개된 위인의 직업에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해나가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인’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위인의 네 가지의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점은, 교과서에 반영된 위인의 모습에 ‘국가나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그것이 보편타당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느 사회든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공통된 핵심문화가 있고, 그 핵심문화는 사회의 공통된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사회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²⁾

그러나 학교 교육 내용이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종래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타당한 견해라고 말하기 힘들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합의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 사회 혹은 국가의 교육내용은 역사적 · 사회적 · 정치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지식만을 취급하지 않으며, 국가는 교과서를 통해 지배적인 가치와 이념을 명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 속의 가치를 내면화 하게 하는 ‘가치 교육’의 도구로서 활용된다. 그 중 위인을 다룬 ‘전기문’은 읽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다른 장르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2) 김인전,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잠재적 의미 - 전기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1.

소개해주며, 학습자의 가치관 형성과 자아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국가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가장 잘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전기문은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잠재된 교육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국가에 의해 가치를 주입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통해 사회가 중요하게 여겨는 가치, 즉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가 중요시 하는 가치관과 그 양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전기문의 성향은 극명하게 변화하였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기문이 주로 읽기 교육에 활용되었던 것에 비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과거 교육과정의 경우 전기문에 국가 위주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것에 비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기존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위인으로 소개되었다. 따라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문과 그 속의 위인 구현 양상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그 교육적 의미와 시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 활동을 통해 전기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에 관한 연구는 다른 장르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을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관련 논문은 많이 있었으나,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다룬 논문은 비교적 적었다. 비록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다르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다룬 논문의 경우 역시 ‘전기문 속 위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연관성이 깊어 보였다. 따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다룬 논문들도 선행 연구 대상으로 폭넓게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 목적에 따라 선행 연구의 검토 방향을 ‘전기문 텍스트 연구’와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다.

먼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텍스트 연구에 관해 살펴보겠다.

전기문 텍스트를 연구한 경우에는 주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을 살펴보고 위인의 성별, 국적 등을 분석하여 어떠한 인물이 위인으로 선정되었는지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논문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을 두루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있다.³⁾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에 위인으로 소개된 인물 대부분이 일제 대 독립운동가나 조선시대 장군이며 남성위주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우리나라 인물 위주에서 외국 인물로, 현대에서 과거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을 영입하고 주제에 어울리는 인물을 선정한 전기문을 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인간 발달 측면에 따른 속살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또한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을 시대별, 국적별로 한국인물과 외국 인물로 나누고 주제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⁴⁾ 시대는 크게 ‘개화기 시대’와 ‘교육과정기 시대’로 나누어 개화기 시대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 9명(총 7개 국가의 인물)과 교육과정기 시대(교수요목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79명의 인물(총 16개 국가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위인으로는 주로 근대 이전의 학자나 관리, 장군, 독립 운동가가 선정되어 전기문에 실렸고, 외국 인물은 주로 서양의 근·현대 인물이 위인으로 선정되어 교과서에 수록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서양 인물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기문의 인물 선정이 제한적이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신분과 주제를 다루는 전기문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초등 국어 교과서로 폭이 좁아졌다는 것 외에는 앞서 언급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전기문에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인물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단순히 인물 선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논의에서 벗어나,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과서에 수록되는 전기문 제재의 수록 기준을 구체화 한 연구도 있었다.⁵⁾ 특히 전기문 제재 수록 기준을 ‘국어과 교육과정’, ‘아동의 발달 특성’, ‘전기문의 텍스트 요인’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제재 수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제7차 초등학교 5,6학년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제재들에 적용하여 연구를 확장한 점도

4) 정근영, 「초등 국어 전기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5) 서민, 「초등학교 고학년 국어(읽기) 교과서 전기문 제재 수록 기준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전기문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기문 텍스트 연구가 대부분 인물 선정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였던 것과 달리,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연극적 방법을 활용한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에서는 전기문 지도 부재의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전기문 속 인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극적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할극 방법, what if 방법, 모의재판 등에 대한 수업 절차와 모형을 각각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수,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주로 교재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연극적 방법을 활용한 지도 방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동학습을 활용한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의 경우에는 전기문과 소집단 협동 학습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⁷⁾ 개발한 수업 모형은 모두 5단계로 구성되었는데, 1단계는 미리 읽어온 전기문에 대한 감상 발표하는 준비단계, 2단계는 1단계를 토대로 주제 선정, 3단계는 모둠원들이 준비한 내용을 발표, 4단계는 평가 단계, 5단계는 내면화 단계이다. 체계적인 구성으로 협동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실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학생들의 소집단 협동 학습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중학생들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 연구에서 추출된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6) 황경임, 「회극적 기법을 활용한 전기문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7) 손순아, 「소집단 협동학습을 이용한 전기문 지도방안」,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대부분의 논문이 텍스트나 지도방안 연구 둘 중 하나만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과는 달리 전기문 텍스트 연구에서 지도 방안 연구까지 연계한 논문도 있다.⁸⁾ 이 논문의 경우,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특성을 이전의 교육 과정과 비교 연구하고 전기문 지도의 방안 개선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향은 크게 ‘전기문 텍스트 연구’와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저, 전기문 텍스트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교훈성과 일화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전기라는 갈래에 맞는 지도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전기문 텍스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도 방안 연구로 확장하여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이상으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몇몇 전기문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속 전기문의 위인 선정이 적절한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보다 다양한 위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 걸쳐 발행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는 이미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위인을 다루고 있어 선행연구와 같은 논의는 의미가 없다. 지도 방안 연구에 있어서는 연극이나 소집단 활동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그마저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작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도되는 학습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전기문에 소개하는 등 과거 어느 교육과정보다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속

8) 이영애,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전기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기문이 학습자들의 가치관 형성과 진로 탐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볼 때, 중학생 시기야말로 전기문의 교육적 효과와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위인이 구현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과거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어떻게 지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습활동을 토대로 지도 경향을 파악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교과서라 함은 각 교과가 지니는 지식경험의 체계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기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를 말한다.⁹⁾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국어교과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편찬한 국정 교과서로서 단일 체제이었다. 단일 체제의 교과서는 지역이나 계층간 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계획하고 편찬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적 목적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이 교과서 목표나 제재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통해서 변화하는 위인의 성향을 토대로 이에 반영된 국가의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반면 과거의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 1999,

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가의 가치관만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난 면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활용 양상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에 따르고자 한다.

먼저 전기문에 반영된 국가의 가치관에 살펴보기에 앞서, 전기문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다룬 ‘전기문’에 대한 정의와 연구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과거 교육과정인 교수요목기 ~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는 국정 체제로서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성향을 분류하고,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들의 성별, 시대배경, 직업 등을 표를 통해 분석하여 반영되어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추출하고자 한다. 전기문에 이입된 이데올로기는 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었던 교육과정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의 국정 체제와는 달리, 검인정 체제로서 보다 자율성을 확보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의 교과서와는 달리 국가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과거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담이 전기문에 수록되었다. 더불어 제시된 학습활동 역시 기존의 것과는 달리 참신하고 다채로운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활동에 근거한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활동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전기문이 어떻게 지도되고 있는지 ‘지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연구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범위 하에서 연구대

상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교과서로 한정한다. 즉, 제7차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되, 연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발행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II. 교육과정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분석

1. 전기문의 기본 개념 및 특성

어떤 인물을 위인으로 선정하였는지, 선정된 인물의 어떤 면모를 강조하고 채택하여 교과서에 수록하였는지는 교육과정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적든 많은 반드시 역사적 영웅을 위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서술 구조는 ‘전기문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기문’이란 무엇인가? 서양에서 전기문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것은 17세기 말 영국의 고전과 시인 드라이든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논평하면서부터이며 하나의 문학 양식으로 완벽한 기반을 확립한 것은 18세기말에 이르러서였다.¹⁰⁾

이보다 앞선 시기인 17c 초에도 ‘전기문’이라는 장르가 독자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전기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1605년에 출판된 『학문의 진흥』(The Advancement of Learning)에서 프란시스 베이컨(Bacon)은 그 자신의 시대에 전기적인 글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현시대가 생애들에 관한 글들이 보다 자주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시대의 덕행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 군주들과 절대사령관들이 많지 않고, 국가들 대부분이 군주국들로 되어 있지만 산만한 보고나 공허한 찬양들 이상의 대접을 받을 만한 값있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¹¹⁾

비록 이 시기에는 소설과 전기문, 역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였지만 위

10) 김현철, 「중학교 전기문 지도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1) Alan Shelston, 李京植 번역, 『傳記文學(Biography)』,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9.

의 글을 통해 전기문을 통해 훌륭한 인물들의 삶을 다루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문에 관한 관심과 창작활동은 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예술로서의 전기문학』(Biography as an Art)¹²⁾에 따르면, “역사의 어느 부분도 위대하고 값있는 인간들의 생애들보다 더 교훈적이고 즐거운 것은 없다.”고 버네트(Barnet) 주교는 말했다. 이는 ‘전기는 기쁨과 교훈을 주는데 있어서 이들과 같거나 이들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전기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학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당대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인물의 생애를 글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전기문을 이루는 요소로는, 인물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는 사실적 요소와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적 요소, 인물에 대한 비평적 요소가 있다. 구성방식으로는 인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모두 서술하는 일대기적 구성과 중요한 일화만을 집중적으로 구성하는 집중적 구성 방식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경우,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중적 구성 방식을 취한다.

전기문의 형식의 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자서전(自敍傳): 인물이 직접 자기 일생에 관한 내용을 쓴 글이다. 자서전에는 출생부터 집필 시점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다룬 것과 생애의 중요한 단계나 사회 활동 부분만을 일부 다룬 것이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생 중에서 특히 중요한 활동 부분만을 기록한 것은 ‘회고록(回顧錄)’이라 하여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2) 평전(評傳): 작가가 역사적 자료를 선정하고 해석하여 정리한 비평적

12) J.L. 클리포드, 『예술로서의 전기문학(Biography as an Art)』, 런던, 1962.

전기이다. 인물의 역사적, 사상적, 문학적 업적 등에 대해 작가가 평가하여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인물에 대한 사료 등을 통해 인물에 대하여 해석과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작가의 태도나 관점이 반영된다. 따라서 평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 기록물과는 다르다.

(3) 열전(列傳): 여러 인물의 전기를 한데 모아 차례로 기록한 글이다. 주로 역사적으로 같은 계통이나 비슷한 일을 한 인물들의 업적이나 일화를 적었다.

(4) 행장(行狀): 고인을 추모하여 쓴 글. 인물이 죽은 뒤에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평생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찬미적(讚美的)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전기문은 자서전, 평전, 열전, 행장을 모두 포괄한다. 인물의 생애나 특정 사건, 업적 등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인을 제재로 삼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글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을 다룬 글 대부분이 전기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전기문’은 일반적으로 실제 살았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적 요소가 가미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문학적 요소 가미된다는 점에서 전기문은 소설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기문의 경우 허구적인 소설과는 달리 객관성과 사실성이 강조되며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과서 속 전기문의 경우 이러한 장르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국가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강하게 드러난다. 교육은 국가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전기문은 ‘교과서’라는 틀 속에 갇힌 채 의도된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 된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정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전’이란 말은 측정의 도구인 ‘갈대’나 ‘장대’를 의미하는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되어 ‘규칙’이나 ‘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정전은 한 문화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보존되는 텍스트를 총칭하는 말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가르쳐야 할 텍스트의 공식적인 실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전을 선정하는 것은 국민이나 국가의 이념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이념은 이데올로기국가 기구로서의 학교라는 제도는 물론 교육과정과 교과목 등의 물질적 차원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전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미학적인 이유만이 강조되고 정치적인 이유는 은폐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¹³⁾

즉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명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교과서 속 전기문 역시 사회의 지배적 사상이나 의식, 태도 등을 수록하여 공식화된 힘을 가진 정전으로서 학습자들에게 국가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체득시키고 지배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속 전기문은 어느 시대에 쓰였는가에 따라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이 다르며, 동일한 인물을 다루었어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육과정별 교과서 속 전기문에 어떤 인물이 위인으로 소개되었는지,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통해 교과서에 반영된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2. 전기문의 변화 양상

13) 손영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제재의 비판적 분석」,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재인용.

청소년들은 매우 높은 가소성(可塑性)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정신은 일종의 백지(tabula rasa)상태로서, 모방 가능한 모형에 대한 동일시의 경험이 축적된 가운데 자아를 형성한다. 따라서 성장단계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는데에 모델이 될 만한 작중인물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¹⁴⁾ 특히 위인에 관한 수많은 전기문 중 청소년들이 가장 권위를 많이 부여하고 반복하여 읽게 되는 것이 교과서라고 할 때,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다양성과 가치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인의 성향을 통해 어떤 논리에 의거하여 인물이 선정되었는지 교육과정별로 분석해보도록 한다. 인물 양상은 ‘직업 · 성별 · 국적 · 시대’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고, 전기문의 제목이나 줄거리는 가능하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구성이나 서술자의 어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정리하였다.

1)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

전기문이란 실존했던 인물의 업적이나 삶을 적은 글이지만, 문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진 것이다.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사건들이 취사선택되고, 그에 대한 비평이 가미되어 재구성 된 글이므로 그 안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경우, 국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선정되고 작성되어지는 만큼 글쓴이의 의도를 넘어서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깃들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기문 고유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을 국가의 이념, 정치를 분리하기 어려운 교육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은 국가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자 동시에 재생산의 수단이다.

1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의 내용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교육의 근본 이념으로 활용해 온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가 국가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다. 해방 이후 혼란과 정치적 격변의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에 의해 전횡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는 정권의 이념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다.¹⁵⁾

특히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정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제7차 개정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가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 역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교육과정일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물을 위인으로 선정한 교수요목기 ~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전기문’으로 묶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물 양상과 전기문의 성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1) 교수요목기¹⁶⁾

미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교수요목’은 정부 수립 후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또한

15) 강진호,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16)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이란 각 급 학교의 교과편제와 시간배당이 함께 작성된 교수요목을 말하며,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수요목기라고 불리게 되었다.

‘교수요목’은 교과 교육과정의 초기 형태로 이후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비록 임시방편이었지만 미 군정기에 만들어진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부터 전기문 수록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시기의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교수요목기의 국어과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정청 교육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학교 교육의 지침을 위한 ‘교수요목’을 고시하였다. ‘교수요목’은 우리 교육 사상 최초로 성문화된 교육과정으로 전통적인 교과주의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⁷⁾ 미군정기의 교육 정책은 군정청 학무국(후에 문교부)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실제 업무는 조선인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 정책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나 각 급 학교의 제도 정비 및 ‘교수요목’의 제정과 같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간 점이 특징이다.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1>과 같다.

교수 요목기	학년, 학기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1학년 2학기	IX. 이야기 말		31. 화랑 소 년 관창	화랑, 남
32. 이준과 안중근				독립운동가,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33. 삼일 운 동의 회고				독립운동가, 여	한국, 일제 강 점기
2학년	VII. 전기를	23. 안창호	독립운동가·	한국, 일제 강	

17)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2005.

				학자, 남	점기
	2학기	읽자	24. 가장 한 국을 사랑한 원 한경 박사	학자,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 6.25 사변
			25. 에이브라 함 링컨	변호사·정치 인, 남	미국, 19c

<표 1>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단원 하나를 차지할 만큼, 전기문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수요목기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성별과 시대배경이다.

위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위주의 인물 선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인으로 선정된 6명중 5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며, 6명의 위인 모두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받는 암울한 상황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더불어 국적에 상관없이 6명 모두 조국에 대한 사랑이 컸으며,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진 않았더라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이 당시 국가는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가치와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주안점이 국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에게 필요한 태도를 길러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유일하게 외국인물인 ‘에이브라함 링컨’만 특정한 시대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물만 부각되고 있고, 나머지 5명의 우리나라 위인들은 모두 전쟁이나 식민치하의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불태우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에이브라함 링컨’만 작품 속 시대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교과서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링컨이 살던 시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교수요목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얼마 안 되
 어서 냉전체제로 접어들던 시기로, 미군정청 학무국 주도 하에 교수요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에이브라함 링컨’ 역시
 다른 전기문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 즉 국가(교수요목기엔 미
 군정청 주도하에)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
 과서에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전기문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전기문 성향	교수요목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 취	「이준과 안중근」, 「삼일 운동의 회고」, 「안 창호」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	「화랑 소년 관창」, 「가장 한국을 사랑한 원 한경 박사」
민주주의와 인류애	「에이브라함 링컨」

<표 2> 성향에 따른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위의 표를 통해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 대부분이
 ‘애국심 고취’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애국심 고취’라는 교육 목적은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IX. 이
 야기 말 - 31. 화랑 소년 관창’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품일이 그 아들 관창의 머리를 받아 안고, 소매 자락으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내 아들의 면목이 이제야 살았구나, 아! 착하다. 내 아들아!”

하였다. 그것을 본 신라의 많은 군사들은, 다시 크게 기운을 내었다.

“어, 나도 저같이 죽어야 하겠구나!”

“나도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자!”¹⁸⁾

18) 문교부, 『중등국어 1-Ⅱ』, 1953, p.211.

이 이야기는 황산벌 전투에 관한 것이다. 신라는 백제의 명장 계백 장군에게 계속 패하자, 품일 장군이 자신의 아들인 화랑 ‘관창’을 혼자 적장에 보낸다. 목숨을 걸고 싸우다 계백의 손에 죽은 관창을 보고 신라의 군사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자!”라고 전의를 불태운다. 군사들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애국심’은 주동인물인 관창과 신라 군사들만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백제의 장군 계백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었다. 이와 같이 계백은 백제의 장군으로 백제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었고, 관창은 신라의 부장으로 신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죽었다.¹⁹⁾

이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관창과 대치하고 있는 반동인물 계백을 통해서도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기문이 얼마나 목적성이 강한지를 알 수 있다.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 역시 애국심 고취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1학년 2학기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비해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육자’적인 면모도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인으로 소개된 ‘안창호’와 ‘원 한경 박사’ 모두 민족과 국가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인물로서, 동시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힘쓴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언급하는 등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도 1학년 2학기 교과서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이 어떤 교육 범주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자.

19) 문교부, 앞의 책, p211.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이 대단원명 ‘IX. 이야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화법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후 교육과정 대부분의 ‘읽기 교육’을 위해 전기문을 수록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이다. 세 편의 전기문을 실은 대단원 ‘IX. 이야기 말’에서는 본격적으로 작품 감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홀로말이나 서로말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연구하여 봅시다.’라고 단원취지를 밝히고 있다. 유독 교수요목기 1학년 1학기 교과서에만 화법교육을 위해 전기문을 수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당시 시대상황에 있다.

교수요목기에 앞서 일제강점기의 화법 교육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해방 후, 교수요목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말살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말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말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전기문을 활용할 만큼, 국어 교과서는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기문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가치 교육’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전기문을 통해 본 교수요목기 교과서의 한계점으로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한자 어휘들이 풀이나 설명 없이 사용되었으며 작품에 대한 ‘익힘 문제’ 등이 없어 학습활동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제1차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을 제정한 것은 1955년 8월 1일로, 이를 제1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이는 우리 자력으로 공포된 최초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다. 제1차 교육과정은 구미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에 영향을 받았으며, ‘교수요목’에 비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더욱 중시하였고 기본적인 언어 습관과 언어 수행 기능을 올바르게 기르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3>과 같다.

제1차 교육 과정	학년, 학기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2학년 2학기	IX. 전기	1. 안골포 대첩	장군, 남	한국, 임진왜란
	2. 노량 충 렬사 비문		장군, 남	한국, 임진왜란	
	3. 이 충무 공 동상찬		장군,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4. 순국 소 녀 유 관순 추념사		독립운동가, 여	한국, 일제 강 점기	
	5. 어두운 시절		과학자, 여	폴란드, 러시아 식민치하	
	6. 운명을 극복하는 정신		음악가, 남	도이칠란드, 18c 후반	

<표 3>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비록 2학년 2학기에만 전기문을 수록하였지만, 대단원 하나를 전기문에 할당하였으며, 그 단원에 무려 6편

이 수록되어 교과서 전체에서 전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수요목기’와 별 차이가 없다. 6편중 4편이 남성 위인과 관계가 있어 남성 위주의 인물 선정이란 점도 앞선 시기와 같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중 눈에 띄는 점은, 처음으로 ‘여성 전기문’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4. 순국 소녀 유 관순 추념사’는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라는 점에서는 앞서 소개된 ‘안창호’나 ‘안중근’과 다를바 없지만,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위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5. 어두운 시절’ 역시 ‘여성 위인’을 다룬 전기문이다. 소설이나 시 등 다른 장르에서 여성작가나 여성시인의 작품이 등장한 시기에 비하면 훨씬 이른 시기에 여성 위인이 두 명이나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위인으로 선정된 유관순과 퀴리부인도 근대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식민치하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각시킨다. 특히 퀴리부인의 경우 세계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인류를 위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의 국민으로서 받은 설움을 집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여줄 뿐이다.

또 다른 특이 사항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 안골포 대첩’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격파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뒤이어 ‘2. 노량 충렬사 비문’이란 소단원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고 기리게 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특히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충렬사를 받드는 데에 그치지 말고, 죽더라도 삼천리를 다 찾은 뒤에 내게 고하

라.” 명명(冥冥) 중에 이 충무공의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²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제시한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항일정신을 더욱 확대시켜 빼앗긴 북녘을 되찾자는 말을 하고 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생각인 것처럼 그의 입을 빌어 통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막 끝났던 그 당시 시대상황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산 용두산 위에 세운 이 충무공 동상 아래 새겨 넣은 글인 ‘3. 이 충무공 동상찬’을 제시하여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찬양과 애국심 고취에 쐈기를 박는다.

‘4. 순국 소녀 유 관순 추념사’ 역시 항일정신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실렸다는 점에 있어서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전기문과 취지가 같다.

‘5. 어두운 시절’은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던 폴란드 소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훗날 저명한 과학자 ‘퀴리부인’이 됨)’의 일화를 다룬 내용이다. 몰래 폴란드어 수업을 하던 중, 러시아 장학사가 들이닥쳐 러시아어로 기도문과 역대 러시아 황제들의 존호를 외우게 하고 나가자 그 설움에 복받쳐 마리아가 우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식민 현실의 서러움과 많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소개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퀴리부인(마리아)이 어렸을 적과,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점을 생각하여 보라”라는 익힘 문제를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주인공인 퀴리부인이 식민 현실을 극복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된 점을 통해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 역시 그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퀴리부인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 문교부, 『중학 국어』(II-II), 1959, p.145.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익힘문제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그의 빛나는 일생을 그린 퀴리 부인 전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 보라’라고 권유하고 있다. 익힘문제를 활용하여 이 전기문을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으로 연계시키려는 점에서 교수요목기보다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6. 운명을 극복하는 정신’이란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의 전기문으로, 유일하게 시대 배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귀가 멀어버리는 역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귀가 멀어버리는 역경은 베토벤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줌으로써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인류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베토벤 역시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소개된 위인들과 다를 바 없다.

제1차 교과서에 수록된 6명의 위인 모두 노력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감동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일한 애국지사, 영웅들의 행적을 알아두고, 위대한 학자나 예술가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높은 인격이나 굳은 의지에 감화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작품 감상에 들어가기 앞서, 대단원명과 함께 소개된 전기문 수록 취지에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그들이 주는 희망은 학습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전기문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기를 읽음으로써 ‘학습자의 독서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새로운 취지가 더하여졌지만, 위인들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는 ‘교수요목기’와 동일하다.

시대상황 역시 베토벤의 생애를 그린 ‘운명을 극복하는 정신’을 제외한 5편 모두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받는 암울한 상황으로 교수요목기와 유사하다.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익힘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 활동과 평가가 이루어

지게 했으며, 어려운 한자어나 지명을 풀이한 각주를 달아놓은 점은 ‘교수요목기’에서 볼 수 없었던 면모이다. 그러나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의 성향이나 시대배경, 위인을 바라보는 관점 등 전반적인 흐름은 교수요목기에 수록된 전기문과 동일선상에 있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전기문 성향	제1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	「안골포 대첩」, 「노량 충렬사 비문」, 「이 충무공 동상찬」 「순국 소녀 유 관순 추념사」
식민 현실과 극복	「어두운 시절」
예술가의 노력과 장애 극복	「운명을 극복하는 정신」

<표 4> 성향에 따른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 6편 중 4편이 ‘애국심 고취’를 위한 것이며 이는 앞서 ‘교수요목기’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소개된 여성위인 두 명 모두 진취적이고 근대적인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교과서에 수록된 이들의 전기문은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성평등의 논리가 아닌, 애국·애족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2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고시되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로 4·19의거가 일어났고,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미 4·19의 경험을 가진 국민들을 다시 새로운 정권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제2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것이다. 그리고 제2차 교육과정을 통해 박정희 정권은 민주적 신념과 반공정신,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 양성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기조로 내세워 국민들의 분열된 정서를 국가 중심으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에 전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했다.²¹⁾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들은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와 달리 중요한 어휘들을 모두 한자로 표기하는 등 일부 형식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기문들의 성향은 제1차 교육과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학년, 학기	대 단 원 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제2차 교육 과정	1학년 1학기	IV. 歷史 를 빛낸 이들	1. 도산 안 창호	독립운동가· 학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2. 어두운 時節	과학자, 여	폴란드, 러 시아 식민 치하

21) 김예니,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의 구현 양상」,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3. 세잔의 생애	화가, 남	프랑스, 19c
			4. 운명과 싸워 이긴 베테벤	음악가, 남	도이칠란드, 18c 후반
	3학년 2학기	VI. 일기 와 전기	2. 李商在	독립운동가· 학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3. 김 마리아	독립운동가· 학자, 여	한국, 일제 강점기
			4. 마하트마 간디	독립운동가· 변호사, 남	인도, 영국 식민치하
			5. 앨버트 아인슈타인	과학자, 남	독일·미국, 제2차 세계 대전

<표 5>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잔, 이상재, 김마리아, 간디, 아인슈타인’ 등 앞선 교육과정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위인들이 대거 출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앞선 시기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안창호’나 ‘어두운 시절(퀴리부인 이야기)’과 같이 국가를 위해 살다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위인의 등장이라고 볼 수 없다.

작품을 통해 전기문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1. 도산 안 창호’는 교수요목기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위해 살다간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는 교과서 본문 맨 마지막에 “이같이 도산은 악착한 日本統治 밑에서 오직 조국의 光復을 위하여 싸우다 간 것이었다.” 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불어 익힘문제에서는 “약소 민족으로서 침략자와 대항하여 싸운 이의 전기를 읽어보자.”라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있다.

‘2. 어두운 時節’은 제1차 교육과정에 실렸던 내용과 동일하여 과학자로서의 면모가 아닌 식민치하의 소녀로서 겪어야 했던 울분을 그리고 있다. 익힘문제에서도 “국어와 민족과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국어의 존귀성을 알아보자.”라고 하여 이 전기문이 국가와 국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에서 수록되었음이 드러난다.

‘3. 세잔의 생애’는 가장 눈에 띄는 전기문이었다. 새로 등장한 인물인데다 외국인물이고, 화가로 유명한 위인이므로 국가주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은 순수한 전기문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의 생애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는 전기문이었다. 이는 교과서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세잔은 살아서 그의 아버지에게 孝道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대신 예술을 통하여 조국에 忠誠을 다하였으며, 또한 그의 작품은 조국의 榮譽를 높였다.²²⁾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에게 효도하지는 못하여도 조국에 충성을 다한다면 위인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면 훌륭한 인물이라는 논리는 뒤이어 수록된 ‘4. 운명과 싸워 이긴 베토벤’으로 이어진다. 이 전기문은 앞서 제1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것과 내용, 익힘문제 모두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2. 李商在’와 ‘3. 김 마리아’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역경과 행보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애국·애족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익힘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22) 문교부, 『중학 국어』(1-1), 1966, p.128.

‘2. 李商在’에 관한 익힘문제’

1. 이 상재 선생이 온 겨레의 존경을 받아 온 까닭은 무엇인가?
2. 이 상재 선생은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
3. 이 상재 선생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4. 이 상재 선생의 인격과 애국심에 대하여 말해 보라.

‘3. 김 마리아’에 관한 익힘문제’

1. 김마리아의 자라난 환경과 그의 생활 신조를 말하라.
2. 김 마리아의 애국 활동에 대하여 말해 보라.
3. 이 글을 통하여 그의 애국 정신을 살펴보라.
4. 김 마리아의 투쟁 내력을 살펴보라

이상의 두 익힘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전기문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마하트마 간디’에는 부재로 ‘참을 위하여 바친 人生’이라고 되어 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인생을 바친 간디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조국을 위한 삶이 곧 ‘참’이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기 나라 독립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갈 길을 가르쳐 준 간디처럼, 한국 사람으로서 조국과 인류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익힘문제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5. 앨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앞에 소개된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아 성취나 만족감이 아닌, 국가와 인류를 위한 인물로서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2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문을 살펴본 결과, 교과서에 소개된 위인 8명 중 4명의 직업이 ‘독립운동가’이다. 직업상 ‘과학자’로 분류된 퀴리부인 역시 과학자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식민 치하 현실을 감당하는 모습이 부각된 만큼, 사실상 퀴리부인지 포함하여 8명중 5명의 위인이 식민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세잔, 베토벤, 아인슈타인이 경우 시대배경과 크게 상관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른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아성취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애국·애족의 논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6>과 같다.

전기문 성향	제2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혹은 반공) 및 애국심 고취	「도산 안창호」, 「李商在」, 「김 마리아」
식민 현실과 극복	「어두운 시절」, 「마하트마 간디」
학자 및 예술가의 노력과 장애 극복	「운명과 싸워 이긴 베토벤」, 「세잔의 생애」, 「앨버트 아인슈타인」

<표 6> 성향에 따른 제2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제2차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이 애국심 고취 혹은 식민 현실 극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 작품에서는 학자나 예술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차 교과서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일한 애국지사, 영웅들의 행적과, 위대한 학자나 예술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높은 인격이나 굳은 뜻을 배워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데에 전기를 읽는 목적이 있다.’라고 밝힌 전기문

수록 취지가 제1차 교육과정과 같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기문을 읽음으로써 ‘학습자의 독서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제1차 교육과정의 기존 취지에 ‘문장력도 함께 증진시키자’라는 새로운 취지가 덧붙여졌다.

(4) 제3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에 고시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이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을 교육과정령에 반영했다면, 제3차 교육과정은 3선 개헌을 거쳐 1972년 10월 유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독재 정권의 현실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컸다.²³⁾

다음으로 제3차 교육과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국민교육헌장이 제정·공포되면서 이것이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1)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2) 협동 정신(사회도덕 윤리면), 3) 국민정신(국민윤리면)을 최대한 향상시키려는 목표²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3차 교육과정이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통해 기본 능력의 배양, 기본 개념의 파악,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를 꾀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 교육도 병행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 사교력, 정서 순화, 주체성, 개척 정신, 봉사·협동 정신, 민족 주체성, 국가관 등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국어과 교육의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듯 민족주체성과 국가관을 강조하면서 애국심을 갖자는 주장은 교과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은 개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가를

23) 김진호, 「국어 교과서의 반민족성」, 『역사비평』, 여름호, 1988.

24) 문교부,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3. 8.31 개정 공포.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가 될 때에만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형성한다.²⁵⁾ 이러한 현상은 애국심과 민족 문화 발전을 강조하는 취지의 전기문이 수록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학년, 학기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제3차 교육 과정	1학년 1학기	언어와 민 족	6. 주 시경 선생	독립운동가·학 자, 남
		7. 폴란드 소녀의 울음		과학자, 여	폴란드, 러시 아 식민치하
1학년 2학기		생활의 이 모저모	12. 도산 안 창호 선생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2학년 1학기		스스로 지 키려는 마 음	17. 이 상재 선생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3학년 1학기		새로운 신 념	1. 3월, (2) 곽낙원과 김 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곽낙원: 독 립운동가·학 자, 여 • 김 마 리 아 : 독립운동가· 학자, 여 	한국, 일제 강 점기
			끝없는 만	16. 인간 이	장군, 남

25) 김예니. 앞의 책, pp.69-70.

		남	충무공		란
			17. 마하트 마 간디	독립운동가·변 호사, 남	인도, 영국 식 민치하
	3학년 2학기	선인의 슬 기	5. 세종 대 왕	왕, 남	한국, 조선시 대
			6. 술거와 담징	• 술거: 화가, 남 • 담징: 화가· 중, 남	• 술거: 한 국, 신라시 대 • 담징: 한 국, 고구려 시대

<표 7>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위의 표를 다시 전기문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8>과 같다.

전기문 성향	제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 심 고취	「도산 안 창호 선생」, 「이 상재 선생」, 「곽낙원 과 김 마리아」
식민 현실과 극복	「폴란드 소녀의 울음」, 「마하트마 간디」
한글 등 우리 문화 의 우수성 함양	「주 시경 선생」, 「세종대왕」, 「술거와 담징」
애국심과 따뜻한 인간에	「인간 이 충무공」

<표 8> 성향에 따른 제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위의 두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2차 교육과정에 비해 많은 전기문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전기문이 수록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소개된 충무공 이순신의 전기가 왜적을 물리치는 행적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에 비해, 제3차 교과서에 실린 이순신 전기는 충무공의 인간성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즉, 어떤 인물에 대한 행적에만 흥미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행적이 있기까지의 인간성을 살펴보고 이를 본받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단원 설정 취지’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애국심을 호소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란 논리가 지배적인 것은 앞선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를 아끼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덧붙여졌다는 점이 새롭다. 이러한 취지는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언어(言語)와 민족(民族)’ 대단원 목표에 잘 드러난다.

이 단원은 네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소단원은, 민족과 언어와의 밀접한 관계를 다루었고,

둘째 소단원은, 국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어 교육에 헌신한 분의 전기이다.

셋째 소단원은, 한때 우리 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이, 폴란드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모국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대에 국어 교육에 힘쓰던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넷째 소단원은, 국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취급한 것이다.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의 일반 목표에 학생들이 접근하도록 지도한다. 즉, 국어 존중의 뜻을 높이고 국어로 표현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한다.²⁶⁾

위와 같은 대단원 목표를 통해 전기문이 교과서에 수록된 취지를 알 수 있다. ‘언어(言語)와 민족(民族)’에 내포된 소단원 4개 중, 전기문은 둘째 소단원과 셋째 소단원이다. 둘째 소단원은 ‘6. 주시경 선생’으로 앞에 수록된

26) 문교부,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1), 1979.

소단원 '5. 언어와 민족'과 연계되어 '한글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앞선 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기를 통해 언어와 민족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이 바탕 위에서 국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를 의도한다는 취지가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애국심만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국어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려 하고 있다. 이는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5. 세종대왕'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6. 술거와 담징'이라는 전기문을 통하여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알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우리 문화재에 한층 관심이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단원에 수록된 전기문은 퀴리부인에 관한 것으로, 앞선 시기에 수차례 소개되었던 위인이다. 이전 시기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로서 성공한 퀴리부인의 면모가 아닌, 식민 치하에서도 모국어를 배우려고 애쓴 애국자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대단원 목표뿐만 아니라 “일제 지배하의 우리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서, 국어와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폴란드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라는 소단원 설정의 취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퀴리부인 전기문을 수록한 이유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과거 우리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지 과학자로서 빛나는 업적이나 인간적인 면모, 노력하는 모습 등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12. 도산 안 창호 선생'은 말로 들려주는 훈화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기문 중 대다수가 '읽기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전기문은 체재의 특성을 살려 말하기와 듣기를 지도하고, 아울러 전기에 대한 공부를 시키도록 한다는 취지 또

한 다른 전기문과 차별된 모습이다. 비록 훈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의 대부분은 전기로 이루어졌으며 ‘도산 안창호의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 교과서에 수록된 안창호 전기문과 다르지 않다. 결국 애국심을 기르고자 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논리는 2학년 1학기 대단원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에 소개된 ‘17. 이 상재 선생’ 전기문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운동을 다룬 ‘17. 이상재 선생’은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다룬 논설문인 ‘16. 현충일을 맞으며’와 당나라와 신라의 투쟁을 다룬 희곡 ‘18. 원술량’과 연계되어 수록되어 있다. 같은 단원에 갈래가 다른 세 작품들을 묶어 수록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단원 구성의 특수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아울러 우리의 조국이 현재와 같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은 선조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단원 설정의 주요 의도이다.²⁷⁾

대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제시되어 있는 위의 취지에 따르면, 갈래별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내용을 강조한 학습이 이루어지길 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어 교과서에 작용한 국가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이다.

간디와 이충무공, 광낙원과 김마리아 등의 전기문 역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제3차 교과서에 함께 수록된 다른 전기문과 동일한 취지로 수록된 것이며 이전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5) 제4차 교육과정

27) 문교부,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2), 1979.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에 개정되었다. 박정희 암살 이후, 12·12 사태를 통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격랑 끝에 제4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것이다.²⁸⁾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군사정권은 국제화 시대에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긍심을 북돋아주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국민적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역시 국가를 강조하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한다.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학년, 학기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제4차 교육 과정	1학년 1학기	6. 전기	(1) 주 시경 선생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2) 폴란드 소녀의 울음	과학자, 여	폴란드, 러시 아 식민치하
	1학년 2학기	9. 전기	(1) 김 종서 장군	장군, 남	한국, 세종 때 여진정벌
			(2) 마하트 마 간디	독립운동가·변 호사, 남	인도, 영국 식민치하
2학년 1학기	6. 전기	(1) 이 상재 선생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28) 김예니. 앞의 책, p.71.

		(2) 나이팅 게일	간호사, 여	이탈리아, 크 림전쟁
2학년 2학기	1. 전기	(1) 신 채호 의 일편단심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2) 도산 안 창호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3학년 1학기	1. 전기	(1) 곽 낙원 과 김 마리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곽낙원: 독 립운동가·학 자, 여 • 김 마 리 아 : 독립운동가· 학자, 여 	한국, 일제 강점기
		(2) 김 만중	사대부, 남	조선, 임진왜 란
3학년 2학기	8. 전기	(1) 만해 한 용운	독립운동가·시 인, 남	한국, 일제 강점기
		(2) 인간 이 충무공	장군, 남	한국, 임진왜 란

<표 9>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차 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많은 전기문이 수록되어 국어 교과서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제3차 교과서에 실렸던 전기문은 물론, 김종서·나이팅게일·신채호·김만중·한용운 등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인들이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위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만 새로울 뿐, 전기문의 수록 취지나 성향은 기존에 수록된 전기문들과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1) 김 종서 장군’의 ‘단원의 개 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삶과 인간적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인들이 피흘린 은덕이며, 그들이 자신의 생애를 조국에 바쳐

노심 조사한 결과이다.”²⁹⁾ 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종서 장군의 개인적인 고뇌, 성찰, 성장이 아니라 ‘생애를 조국에 바친 인물로서의 김종서 장군’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에 소개되었던 위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는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나이팅게일 전기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이팅게일은 외국의 인물이며,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세계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성향을 보았을 때, 기존의 위인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따라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기존의 전기문과는 차별화된 전기문이 기대된다. 그러나 나이팅게일 전기문이 수록된 ‘6. 전기’ 대단원 목표를 보면 기존의 전기문과 같은 취지로 교과서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원의 목표◇

- (1) 전기의 내용을 알게 한다.
- (2) 전기의 교훈성을 알게 한다.
- (3) 자서전과 수기에 대하여 알게 한다.
- (4)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 면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 (5) 체언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게 한다.
- (6) 자료를 만들어 전기를 쓸 수 있게 한다.³⁰⁾

위의 대단원 목표 6가지 중 4번째에 명시되어 있듯이, 학습자들은 나이팅게일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나이팅게일 역시 다른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복과 삶을 바쳐 타인(여기에서는 ‘민족과 국가’)을 위해 살아가는 면모를 보여

29) 문교부,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1-2), 1984.

30) 문교부,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2-1), 1984.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4차 교육과정에서도 ‘주 시경 선생’ 전기문을 통해 국어사랑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더불어 소개한 ‘김 만중’ 전기문에는 국어사랑 정신뿐만 아니라 ‘효(孝)’를 강조하고 있다. ‘김 만중’ 전기문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어사랑’도, ‘효(孝)’도, ‘김만중’도 아니다. 제4차 교과서는 김만중이 지극한 효심을 보였으며 그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윤씨 부인’과 같은 단원에 수록된 ‘곽 낙원과 김 마리아’ 등 세 여성을 통해 ‘여성의 가치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용 지도서 속의 ‘단원의 개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두 편의 전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물은 세 사람이다. ‘곽 낙원(郭樂園)과 김(金) 마리아’에 여성 인물 둘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김 구의 어머니로서, 여성답지 않게 호협하고 의기로와 독립 항쟁을 하는 아들 이상으로 기개가 높았던 분이다. 김 마리아는 젊은 여성으로 독립 운동을 하다 목숨을 바친 분이다. 이 두 분을 한 편의 제재로 묶은 것은, 침략국 일본에 대한 투쟁의 의의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김 만중(金萬重)’은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고, 그 효심에서 우리 나라의 훌륭한 고대 소설 ‘구운몽(九雲夢)’을 남긴 분이다...(중략)... 이 세 인물을 통하여 여성의 가치로운 삶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이하 생략)³¹⁾

위에 제시한 ‘단원의 개관’에서 알 수 있듯이, 제4차 3학년 1학기 교과서는 세 명의 여성 위인들을 통해 ‘여성의 가치로운 삶’을 말하고자 하였다. 전기문 속의 곽 낙원 여사와 윤씨 부인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어질고 정숙한

31) 문교부,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3-1), 1984.

어머니'이며, 김 마리아는 독립운동가이다. 이를 통해, 이 당시 국가가 생각하는 '여성의 가치로운 삶'이란 자신의 삶을 다 바쳐 독립운동에 힘쓸 수 있을 만큼 '국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삶'이며 '훌륭한 인물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삶'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곽낙원과 김마리아' 전기문에 관련 지어 학습활동으로 제시한 '공부할 문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4] 공부할 문제

3. '여성은 나라의 어머니'란 말이 생기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여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할 훌륭한 인물을 낳고 기르며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³²⁾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위와 같이 모범답안을 '여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할 훌륭한 인물을 기르는 인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성위인 역시 다른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존재하며, 자신의 꿈을 성취해나가는 적극적인 여성이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어머니'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9>를 다시 전기문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10>과 같다.

전기문 성향	제4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	「김 종서 장군」, 「이 상재 선생」, 「신 채호의 일편 단심」, 「도산 안 창호」, 「곽낙원과 김 마리아」, 「만해 한 용운」
식민 현실과 극복	「폴란드 소녀의 울음」, 「마하트마 간디」

32) 문교부, 앞의 책, 1984

애국심과 따뜻한 인간애	「나이팅게일」, 「인간 이 충무공」
국어사랑 정신	「주 시경 선생」, 「김 만중」

<표 10> 성향에 따른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전기문이 애국심 고취를 위한 것이다.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의 전기문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는 것과 ‘식민 현실과 극복’, ‘애국심과 따뜻한 인간애’, ‘국어사랑 정신’ 등으로 전기문의 성향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제3차 교육과정과 일치한다. 다만, 제3차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전기문이 새로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애국심을 강조하는 목적의식 더욱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제5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에 개정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항쟁과 6·29 선언 등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정신을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표되었다. 그동안 ‘중학 국어’였던 명칭이 제5차 교육과정에 와서 ‘국어’로 바뀌었으며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비중이 제4차 교과서 보다 약간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존의 인물들이 그대로 전기문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는 앞선 시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11>과 같다.

제5차	학년,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배경
-----	-----	------	------	----	----

교육과정	학기			(직업, 성별)	(국적, 시대)
	1학년 2학기	1. 사실과 의견	(2) 신채호 선생의 일편 단심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15. 상상하 며 읽기	(4) 폴란드 의 소녀	과학자, 여	폴란드, 러시 아 식민치하	
2학년 1학기	16. 판단하 며 읽기	(2) 이상재 선생	독립운동가·학 자, 남	한국, 일제 강점기	
2학년 2학기	6. 글의 짜 임	(2) 김종서 장군	장군, 남	한국, 세종 때 여진정벌	
3학년 1학기	2. 독서와 인생	(2) 만해 한 용운	독립운동가·시 인, 남	한국, 일제 강점기	
3학년 2학기	13. 읽기와 쓰기	(1) 인간 이 충무공	장군, 남	한국, 임진왜 란	

<표 11>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제5차 교육과정은 영역별, 목표별로 단원을 구성하고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전기문의 경우, 본문을 읽고, 사실과 의견 부분을 파악하거나 글의 짜임을 익히는 등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교훈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교수요목기나 제1차 교육과정 등 초기 교육과정에서 전기문 본문에 직접적으로 교훈을 명시한 것과는 다른 면모이다.

위의 표를 다시 전기문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12>와 같다.

전기문 성향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 심 고취	「김 종서 장군」, 「이 상재 선생」, 「신 채호의 일 편 단심」, 「만해 한 용운」

식민 현실과 극복	「폴란드의 소녀」
따뜻한 인간애	「인간 이 충무공」

<표 12> 성향에 따른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이충무공의 전기는 과거 교과서에 수록된 것보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업적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충무공의 위대함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 낸 큰 공에도 있고, 뛰어난 재능과 실력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간성과 끊임없는 노력의 정신에 있다. 이충무공의 순결하고 뜨거운 인간성과 성실한 노력을 본받도록 하자.’라고 제시되어 있다. 즉 이순신 장군의 따뜻한 인간애를 접하도록 하여 성웅 이충무공보다 인간 이충무공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를 위한 국민 양성 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는 새로이 등장한 위인은 없었으며,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미 소개된 인물들로 전기문이 구성되었다. 내용 또한 앞선 시기에 수록된 전기문과 동일하다.

(7) 제6차 교육과정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체계화, 상세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나 국어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제5차와 다르지 않다.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13>과 같다.

제6차 교육 과정	학년, 학기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1학년 1학기	10. 내용의 요약	(1) 신채호 선생의 일 편단심	독립운동가· 학자,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1학년 2학기	2. 상상하며 읽기	(2) 폴란드 의 소녀	과학자, 여	폴란드, 러시 아 식민치하
	2학년 1학기	12. 내용전개의 방법	(2)도산 안 창호 선생	독립운동가· 학자,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3학년 1학기	12. 세부내용 파악하기	(2)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 시인,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3학년 2학기	12. 읽기와 쓰기	(1) 인간 이충무공	장군, 남	한국, 임진왜 란

<표 13>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위의 표를 다시 전기문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14>와 같다.

전기문 성향	제6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 심 고취	「신채호의 일편단심」, 「도산 안창호 선생」, 「만해 한용운」
식민 현실과 극복	「폴란드의 소녀」, ,
따뜻한 인간애	「인간 이 충무공」

<표 14> 성향에 따른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표 13>과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신채호, 안창호, 한용운, 퀴리부인, 이순신 등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인물들이 그대로

수록되어있다. 인물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용 또한 제5차 교육과정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이 ‘위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8) 제7차 교육과정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1998)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창의적 한국인 육성’,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을 개정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인 만큼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학습활동 강화하여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 - 읽기 후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 ‘화가 이중섭’을 통해 ‘능동적인 글 읽기’를 가르치고 있어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자를 기르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가나 민족을 위해 싸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학년, 학기	대단원명	소단원명	인물 (직업, 성별)	배경 (국적, 시대)
제7차 교육 과정	1학년 2학기	1. 능동적으로 읽기	(1) 화가 이중섭	화가, 남	한국, 일제 강점기
	3학년 1학기	4. 읽기와 토의	(1) 지사의 길, 시인의 길	독립운동가·시인, 남	한국, 일제 강점기

	3학년 2학기	5. 글과 표 현	(2) 만해 한 용운	독립운동가· 시인, 남	한국, 일제 강 점기
--	------------	--------------	----------------	-----------------	----------------

<표 15>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양상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2학기를 제외한 전 학년과 학기에 전기문이 수록되었던 것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기문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

전기문을 통해 소개된 한용운은 기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인물이고, 이중섭과 이육사는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다. 기존에 인물이든 새로운 인물이든, 세 위인 모두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상황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나, 세 인물 중 두 인물이 독립운동가라는 점 역시 앞선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중섭도 직접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황소와 한글자모를 소재로 한 자신의 그림에서 민족의 혼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는 본문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위의 인물들과 함께 애국심이 강한 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위의 표를 다시 전기문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16>과 같다.

전기문 성향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	「지사의 길, 시인의 길」, 「만해 한용운」
인간적인 면모	「화가 이중섭」

<표 16> 성향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교수요목기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 성향의 전기문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가 이중섭」의 경우에도 전기문의 대략적인 흐름은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이 ‘식민지 상황에 처한 민족정신을 한글자모 그림과 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라는 말을 통해 그의 애국심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사의 길, 시인의 길」의 역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지사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삶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으로서 남긴 작품들도 조국의 현실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본 헌병의 모진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는 면모를 소개하는 등 시인으로서의 이육사보다는 지사로서의 이육사를 강조하고 있다. 앞선 교육과정에 비해 내세우는 ‘위인’은 다르지만 그 ‘취지’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제7차 교육과정은 창의적 교육을 내세웠으나 전기문에서만큼은 국가의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인으로 선정되는 인물과 성향이 앞선 교육과정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총 55편의 전기문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교수요목기 6편, 제1차 교육과정 6편, 제2차 교육과정 8편, 제3차 교육과정 9편, 제4차 교육과정 12편, 제5차 교육과정 6편, 제6차 교육과정 5편, 제7차 교육과정 3편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수요목기 ~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수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교수요목기의 전기문 수는 6편으로 제1차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다가, 전기문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된 제2차 교육과정부터 증가하여 12·12 사태를 통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던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는 당시 시대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 국가주의 관련 담론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박정희 집권기인 2차 교육과정(1963~1973)에서였다. 이처럼 2차 교육과정에서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전면적으로 투사되어 드러난 것은, 무엇보다 정권을 잡은 뒤 지식인들을 대거 동원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그것을 홍보해야만 했던 군사정권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³³⁾

이러한 정권의 성향은 제3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었다. 3선 개헌을 거쳐 1972년 10월 유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독재 정권은 현실적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을 이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정권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파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인물이 진정한 위인’임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성향은 제4차 교육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애국심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기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역대 어느 교육과정보다도 교과서에 전기문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의 강화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문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구성 방침을 내세운 제6차

33) 강진호, 앞의 책, 2007.

교육과정에 들어서 더욱 감소하였다.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력, 사고력, 판단력, 상상력, 직관력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바꾸고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주의 논리의 전기문을 적게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국어 교과서에서 전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국가의 개입이 줄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록된 전기문의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인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전기문의 성향 역시 큰 변화가 없다. 전기문의 역할 또한 단순히 어떠한 인물이 훌륭한지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점도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다를 바 없다.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들 역시 교육과정은 달라도 같은 인물이 반복되어 소개되어 정전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속 전기문에 소개된 위인은 총 27명으로, 가장 많이 소개된 인물은 ‘이순신’이다. 이순신에 관한 전기문은 총 55편의 전기문 중 7편을 차지하였으며 애국심 고취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퀴리부인’에 관한 전기문이 6편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퀴리부인의 경우 라듐을 발명한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러나 여러 교육과정에 걸쳐 교과서에 수록된 6편의 전기문 중, 그녀의 뛰어난 업적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단 한 편도 없었다. 6편 모두 그녀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퀴리부인 역시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이 소개된 인물은 ‘안창호’로,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이다. 전기문을 통해 부각된 면모 역시 뛰어난 학자로서의 모습 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업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위인 3명의 성향이 애국·애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 27명중 12명이 ‘독립운동가’이고 그러한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전기문이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순신·김종서 등 조선시대에 일제에 맞서 싸운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솔거·담징 등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물’은 곧 ‘위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가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나 문화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세잔·퀴리부인 등 외국 인물에도 작용된다. 즉 겉보기에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위인들을 고루 섭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개인의 가치 있는 경험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는 기존의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체제로

전환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 중심으로 제작되던 단 한 권의 국어 교과서가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엄연히 국가가 제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지만,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와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국어 교과서의 수가 증가한 것이나 교과서 발행처가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일반 출판사들로 확대된 것만은 아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공통 내용 외에도 수준별 심화 내용이나 보충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을 국가에서 규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공통 교육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의 선정,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을 국가 수준에서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수준별 교육이 국가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의 전환은 수준별 교육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수준별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이처럼 국어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전기문의 성향 또한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물들이 위인으로 선정되어 찬양되는 방식으로 쓰인 전기문이었지만,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출현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위인³⁵⁾이라고 일컫기 어려운 평범한 인물들에

34)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8.

35)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인(偉人)’이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본고의 서론

대한 전기문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도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개정 중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전기문 수록 양상을 아래 <표 17>, <표18>, <표19>, <표20>을 통해서 살펴본다.

아래에 제시한 4개의 표는 제7차 개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 2학기 23종 교과서와 중학교 2학년 1학기 · 2학기 15종의 국어 교과서 중 전기문이 수록된 교과서와 전기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목록이다.³⁶⁾

에서 언급했듯이, 교과서에 소개된 ‘위인’이란 ‘1) 실존하거나 실존했다, 2) 국가나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을 잘 드러낸다, 3)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업적을 쌓아왔다, 4) 널리 알려 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라 정의내리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위인’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36)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각 종을 출판사 이름과 대표 저자 이름 약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표 속 교과서 나열 기준은 출판사 가나다순, 동일 출판사의 경우 대표 저자 가나다순이다. 본문에 제시된 전기문뿐만 아니라 보충자료와 학습활동을 통해 소개된 인물들도 모두 ‘전기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 간주하였다.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일기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전기문을 보충하는 자료로 함께 수록된 일기의 경우는 전기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출판사, 대표 저자	약자	전기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대교, 박경신 외	대교(박)	장기려, 공병우,
대교, 왕문용 외	대교(왕)	안철수
디딤돌, 이삼형 외	디딤돌(이)	간디,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소대
비유와 상징, 조동길 외	비상(조)	장기려, 이희아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정약전, 아베베, 헬렌 켈러, 백남준
지학사, 이용남 외	지학사(이)	다이앤 윌슨, 박두성, 장영희
창작과 비평, 김상욱 외	창비(김)	김만덕, 신사임당, 원경선
천재교육, 김대행 외	천재(김)	장준하, 이다도시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헬렌 켈러, 장준하

<표 17>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약자	전기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디딤돌, 김종철 외	디딤돌(김)	간디
미래엔컬처, 이남호 외	미래(이)	간디
새롬교육, 권영민 외	새롬(권)	잭 웰치
유웨이중앙, 이숙 외	중앙(이)	헬렌 켈러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좋은책(이)	장기려, 오토다케 히로타다, 안네 프랑크
천재교육, 김대행 외	천재(김)	헬렌 켈러, 장미란, 나탈리 뒤 투아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엄홍길,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엄홍길, 장영희의 어머니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임방울(본명 임승근), 복효근의 어머니, 오토다케 히로타다, 류양선

<표 18>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약자	전기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금성출판사, 윤희원 외	금성(윤)	김구, 이승복
대교, 박경신 외	대교(박)	안중근, 헬렌 켈러
대교, 왕문용 외	대교(왕)	황병기, 카네기
디딤돌, 김종철 외	디딤돌(김)	안중근, 장기려, 윤무부, 크리스티 브라운
미래엔컬처, 윤여탁 외	미래(윤)	간디, 김수환,
미래엔컬처, 이남호 외	미래(이)	김원일, 오에 겐자부로
비유와 상징, 이남호 외	미래(이)	이현세,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좋은책(이)	간디, 안철수, 김구, 박세당, 헬렌 켈러, 이덕무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간디, 이현세, 권영민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주리, 김수나

<표 19>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약자	전기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사(남)	안데르센, 김수환, 이현세, 예준석의 아버지
지학사, 이용남 외	지학사(이)	안네 프랑크, 김구, 엄홍길, 헬렌 켈러,
창작과 비평, 김상욱 외	창비(이)	헬렌 켈러, 안중근, 손기정, 로스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김구, 손기정, 남승룡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안중근, 박정자, 김영곤

<표 20> 전기문이 수록된 제7차 개정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위의 표 4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전기문에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찾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이거나 국가와 인류에 공헌을 했던 학자, 예술가 등 이었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쉽게 ‘위인’ 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온 인물들이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위인전에도 많이 소개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만나기 전부터 학습자들은 어린이 위인전을 통해 이미 접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생소한 인물들이 대거 출현한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좋은책(이)에 수록된 ‘오토다케 히로타다’와 중학교 2학년 미래(이) 소개된 ‘오에 겐자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문의 경우, 주로 독립운동가나 조선시대 장군을 내세워 항일정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일본인을 위인으로 내세운 전기문은 교과서에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 두 편의 전기문은 주인공이 일본인이다. 애국담론의 틀을 넘어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위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주로 ‘실존했던’ 과거의 인물을 위인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과거의 인물뿐만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현재의 인물 또한 많이 다루고 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천재(김)의 경우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0 광저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을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1학기 좋은책(이)의 경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선 학습활동에 ‘박지성’을 위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시대를 살고 있고 인물의 특별한 경험을 대중매체를 통해 미리 접해보았던 경험이 있던 만큼 전기문 속 위인을 과거의 인물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기문에 대한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현재의 인물들이 ‘위인’으로 선정된 것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해냄(오)에 수록된 ‘복효근의 어머니’에 관한 전기문이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학사(남)에 수록된 ‘예준석의 아버지’에 관한 전기문은 매우 생소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익명으로 등장한다. 글쓴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일 뿐, 국가나 민족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거나 특정 분야에서 성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위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인물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 학습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또한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학습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입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의 전기문을 수록하여 장애인에 관한 전기문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장애를 극복한 인물의 전기문을 종종 수록하였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비상(조)의 경우, 손가락이 한 손에 두 개씩 밖에 없고 다리도 짧지만 피아니스트가 된 이희아의 전기문을 수록하였으며 1학년 2학기 천재(김)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굴하지 않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수영선수 ‘나탈리 뒤 투아’에 관한 전기문을 수록하였다.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적 없는 생소한 인물들이다. 학습자에게 장애는 타인의 일이 아니며, 불의의 사고는 자신에게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위인의 업적을 기리는 전기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기문을 수록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천재(노)의 경우, 아예 ‘주리’와 ‘김수나’라는 중학생의 자서전을 수록하고 있다. 또래가 쓴 전기문을 통해 전기문이란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

나라 자신 혹은 주변 인물들도 전기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기문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기문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내면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전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내면화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제7차 개정 중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를 통틀어 총 6편이 수록된 ‘간디의 전기문’의 경우,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소개되었던 인물을 다루었다는 점에선 기존의 교육과정을 답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수요목기 ~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간디의 전기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과 달리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간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를 위한 인물’에서 ‘거짓말과 폭력을 싫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소신 있는 개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한 똑같이 ‘간디’에 대해 다루었어도 출판사마다 다양한 학습목표에 따른 다양한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과거 앞선 교육과정에 수록된 내용이 답습되어 그대로 수록되던 국정 체제의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을 출판사별로 다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벌어질 혼란도 예상된다. 2학년 1학기 미래(윤) 학습활동에 수록된 김수환 추기경 전기문의 경우, 일제강점기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가 나온다. 김수환 추기경이 황국 신민으로서의 소감을 쓰라는 시험문제에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님. 따라서 소감이 없음.”이라고 쓰자 교장실로 불려가 뺨을 맞는다. 그런데 뒤이어 뺨을 때린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오라는 교구장님의 명령은 뜻밖이었다. 아마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주교님께 나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은 버릇없이 말대꾸한다고 내 뺨을 때리셨지만 한편으로는 ‘괜찮은 녀석인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그분이 누

군가 하면 바로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내신 운석(雲石) 장면 박사다.³⁷⁾

이 전기문과 함께 제시된 학습활동을 통해 보았을 때, 전기문의 중심 내용은 당시 시대상황과 신념을 실천으로 옮긴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이다. 따라서 ‘교장 선생님’은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2학년 1학기 미래(윤)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교장 선생님 역시 김수환 추기경처럼 두려움에 자신의 소신을 접지 않는 인물로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신에 따라 답을 쓴 김수환 추기경에게 교장 선생님은 ‘일본 유학’이라는 상까지 주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김수환 추기경을 ‘괜찮은 녀석인데’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일화를 다루고 있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학사(남)의 경우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황국 신민으로서의 소감을 쓰라는 시험문제에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님. 따라서 나는 소감이 없음’이라 답했다는 부분까지는 2학년 1학기 미래(윤)과 같으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반응이 다르다.

“이것 학생 것이 틀림없지?”

“네.”

“학생의 이런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밝힌 것뿐입니다.”

37) 윤여탁 외, 『중학교 국어 2-1』, 미래엔컬처, 2011, p.235.

교장 선생님의 손바닥이 수환의 뺨을 철썩 하고 갈겼다.

“이놈아, 너 하나의 이런 감정 표현으로 학교가 당할 고통을 생각이나 해 보았어?”

그때 수환이는 알게 되었다. 자신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불행하다는 것을.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장 선생님의 반응이 미래(윤)과 전혀 다르다. 교장 선생님은 김수환 추기경의 행동에 칭찬은커녕 뺨을 때린 후 학교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김수환 추기경이 조선인은 모두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이 일화는 끝난다. 따라서 교학사(남)을 배운 학습자들은 동일한 일화가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윤)의 일화를 배운 것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신 있는 행동을 했으나 암울한 시대의 벽에 부딪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미래(윤)의 경우 김수환 추기경의 자서전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를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학사(남)은 정채봉이 쓴 『바보별님 -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을 적은 자서전과 달리 교학사(남)에 수록된 ‘평전’은 인물에 대한 작가의 해석과 평가가 더해진다는 점에서 작가의 태도나 관점이 반영된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일이 작가에 의해 각색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작은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교과서로 배운 학습자들은 각각 다른 결론으로 치달아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검인정 체제 교과서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습활동과 지도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작품분석은 ‘Ⅲ. 제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연구’에서 다루도

록 하겠다.

3. 전기문에 반영된 이데올로기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살펴 본 결과, ‘항일 정신 및 애국심 고취’, ‘식민 현실과 극복’, ‘한글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 함양’, ‘따뜻한 인간애’ 등의 성향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의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이데올로기³⁸⁾가 작용한다. 이러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국가주의’라 칭하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가주의’란 ‘모든 인간 생활을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전기문에 드러나는 이데올로기 역시 개인보다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문에 국가주의가 반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정 교과서가 국가이념을 반영하고 퍼트리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글이 갖는 위력은 ‘모두 훌륭한 글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과서에 실린 글이면 어떤 것이든 감히 의심을 품으려 들지 않는다. 더구나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담고 있고, 학교의 모든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며, 학생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개별적 존재인 개인을 ‘국민’으로 구성하기 위한 1차적인 통과 의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는 개별 주체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38)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데올로기(Ideology)’란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적으로 강제된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체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구속하는 억압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국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특정한 이념과 가치만이 무비판적으로 주입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가치와 사고를 접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당하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이유로, 국정 교과서인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국가의 가치관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앞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살펴본 본 결과, 전기문 텍스트나 학습활동에 국가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전기문에 반영된 이데올로기가 집필자 개인의 사상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전기문의 장르적 특성상, 글쓴이의 의도와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문에는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문학적 요소가 더해지므로 글쓴이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과서를 만들 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 목표에 ‘국가와 민족 우선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걸쳐 전기문에 반영된 국가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교과서에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은 각 시기별 교육과정이 목표로 삼은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서가 편찬되고, 거기에 녹아있는 이념을 교수·학습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전기문에 내재되어있는 ‘국가주의’가 의도된 것임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1) 애국·애족의 국가주의 발현

교수요목기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정준섭은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을

39) 강진호, 앞의 책, p.112.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와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했으며, 일본 강점기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나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⁴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직후 첫 교육과정인 ‘교수요목기’에는 기초 능력 배양과 애국·애족의 국민정신 함양을 중시하였다. 이 시기의 기초 능력 배양이란 한글 보급과 문맹 퇴치를 의미한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글 교육이 제한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황국 식민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교수요목기에 국어 기초 능력 배양과 국민정신 함양을 강조한 것은 그 당시로서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공포되었던 <교수요목>⁴¹⁾에서도 나타난다.

<교수요목>
ㄱ. 초등학교 교수 요목
... (이하 생략)
ㄴ. 중학교 교수 요목
(일) 교수 요지
... (중략) ...
(이) 교수방침
(ㄱ) 국어의 됴됨이를 밝히며, 그 **국민다운 사상** 감동의 표현 방법을 가르치어,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상, 체험의 명확한 발표를 익히고, 국어 애중의 생각을 기름.
(ㄴ)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하게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적(史的)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 **국민정신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창조 확충하게 하는 신명을 배양함.** ... (이하 생략)

40)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41)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2006, pp.112-113.

이처럼 당시 발표된 <교수요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국민다운 사상, 국민정신’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애국심과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기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기문을 교과서에 수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수요목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6편 중 5편이 ‘애국심 고취’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나머지 한편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역시 넓게 보았을 때 ‘국민다운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요목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에 국가를 위한 국민 양성이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제1차 교육과정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 이후 모든 분야의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에 제1차 교육과정을 제출했다. 전쟁으로 혼란해진 사회는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분열된 상태로 몰아넣었는데 정부는 국가를 위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이반된 민심을 통합하려 하였다.

이는 1955년에 공포된 제1차 교육과정⁴²⁾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문교부령 제45호(1955.8.1 제정 공포)
중학교 교육 과정

1. 우리 나라의 교육 목적과 국어교육

우리 나라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1조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며,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중략)...

그러나, 이 총체적 교육 목적만으로는 세세한 교육 활동을 계획하기에 막연함으로, 이것

42) 문교부,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55. 8. 1 제정 공포.
이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인용한 제1차 ~ 제6차 교육과정의 출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등학교_국어과.한문과교육과정기준(1946~1997)」, <<http://cutis.mest.go.kr>>, 2009.’이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문 표기 그대로를 취하였다.

을 더 구체적으로는 명시한 것이 동법 제2조로, 위에 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침으로 다시 다음의 일곱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 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 문화를 계승 양양하며, 세계 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 ...(중략)...

다음으로 국어과 교육 과정은 그것이 사회적 · 공민적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학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새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바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육 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다른 교과에 그것보다 더욱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크게 삼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가운데는 자기의 의사를 거침없이 말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글로 표현 하기에는 곤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글을 읽는 속도는 빠르나, 독서의 범위가 지극히 좁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를 잘 알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때로는 특수한 학생을 위하여 특별 지도도 있어야 할 것이다...(이하 생략)...

위의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침’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국가 발전에 봉사해야 하며 애국 ·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학습자 개인의 자아 성찰이나 성장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우선 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6편중 5편이 항일 정신과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거나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교육과정기준 중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한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1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수요목기와는 달리 ‘학습자의 개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은 그것이 사회적 · 공민적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 차이에 대해서만 유의해서 지도해야 한다고 말할 뿐, 학생들의 자아 성취보다 국가를 위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 있어서 ‘교수요목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을 새로운 정권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만든 제2차 교육과정 역시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5·16 군사정변은 단순한 정체의 변혁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경제, 문화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국민운동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군사정권의 결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와 국민 전반을 개조하고자 한 일종의 근대적 기획이었다. 비록 타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혁명의 기본 목표를 인간개조에 두었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 형태에 맞는 ‘국민’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개조를 꾀하겠다는 근대적 의도를 담은 것이었다. 2차 교육과정의 『국어』에 그 어느 시기보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된 것은 그런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편찬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는 문교부가 제정한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편찬되고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권에 의해 조율된 관계로 정부는 교과서를 정권의 유력한 홍보 매체로 이용하였고, 더구나 ‘국어과’의 경우는 ‘국정(國定)’이었던 관계로 그런 의도를 현장에서 한층 용이하게 관철시킬

수 있었다.⁴³⁾ 이러한 정권의 ‘국가를 위한 국민 창출’ 계획은 교육과정⁴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문교부령 제120호(1963.2.15 개정 공포)
중학교 교육 과정

I. 목 표

1.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
중학교에서는 국민 학교의 국어 교육 목표를 더욱 발전 확충시키어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품성을 기르는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게 하고, 감정을 바르게 하여 공정한 비판력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의 모든 교육이 다 그러하듯이 국어과의 교육과정도 널리 사회 생활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략)...

다음으로 국어과 교육 과정은 그것이 사회적 공민적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는 동시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새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바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육 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이하 생략)

밑줄 친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제2차 교육과정의 목표 역시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기르기’이다. 그와 동시에 학습자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원하는 바를 찾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 생활을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가주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강진호, 앞의 책, p89.

44) 문교부,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개정 공포.

뒤이어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새 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바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곧 ‘새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8년의 세월이 흘러 제2차 교육과정 고시된 시점에서도 역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육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민양성’을 내세우는 모순적인 면모를 보인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면서 양적인 경제 성장에 의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이 커지자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새마을 운동이나 유신과업 수행과 관련되어 정치적 차원에서 윤색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교과서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게 하고, 철저하게 암기하도록 하였다.

즉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개인 윤리면), 협동정신(사회도덕 윤리면), 국민정신(국민 윤리면)의 국민 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 함양, 인간 교육 강화, 지식 ·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⁴⁵⁾

교과서 화보에는 군사 퍼레이드 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되었고, 민족중흥, 자주국방, 국민총화, 승공 등의 시대적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였다.⁴⁶⁾ 당시 집권 대통령이 특정한 장수를 숭상하면서 교과서에서 전쟁영웅들을 이상화

45) 손영애, 「1-6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 107, 국어교육연구회, 2002.

46) 이종국, 「교과용 도서에 반영된 편차변천 연구」, 『한국 출판학 연구』, 제45호, 2003.

시킨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⁴⁷⁾ 이러한 정권의 의도는 제3차 교육과정⁴⁸⁾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제3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개정 공포) 중학교 교육 과정
가. 목 표
(1) 일반 목표 (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을 신장하고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나)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u>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u> (다) 국어를 통하여, 바르게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힘과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을 길러서,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건실한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라) <u>국어 존중의 뜻을 높이고, 국어로 표현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한다...</u> (이하 생략)...

위의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라는 부분은 사회 윤리적 측면의 협동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며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은 개인 윤리적 측면의 개척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 교육 현장에 기초하고 있다.

‘(라) 국어로 표현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한다.’부분을 통해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우리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문에 소개된 ‘주시경’, ‘안창호’, ‘이상재’, ‘곽낙원’, ‘김마리아’, ‘이순신’등 모두가 항일 정신과 애국심이 뛰어난 인물이며 국적은 다르지만 뛰어난 애국심을 보여

47)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다.

48) 문교부,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3. 8. 31 개정 공포.

주는 ‘퀴리부인’, ‘간디’ 등 역시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위인으로 선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는 ‘세종대왕’과 ‘술거’, ‘담징’에 관한 전기문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역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제4차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특성을 명료화하고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기본 골자로 삼았다. 언어 기능의 신장과 문학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가치관 교육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제4차 교육과정은 정치적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5공화국과 관련이 있다. 5공화국은 3·4공화국의 정책적 기초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적 모순이 표출되면서 능률주의의 허위 의식이 일정 부분 무너지고, 민중들의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자 이를 물리치기 위한 물리적 탄압을 강화한다. 교사활동 탄압,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와 국민정신 강화를 시도하였고,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⁴⁹⁾

제4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⁵⁰⁾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개정 고시)
중학교 교육 과정

국 어 과

가. 교과 목표
국민 학교의 교육 성과를 발전시키고, 국어와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한다.

...(중략)...

49) 손영주, 앞의 책, 2007.

50) 문교부, 「문교부 고시 제422호 중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개정 고시.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지도

가) 국어과는 그 영역을 ‘표현 · 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중략)...

다) 문학 창작은 문학 창작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라) 읽기 자료와 문학 작품은 되도록 아래의 국민 정신 교육에 관련된 요소가 포함된 것을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그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받도록 한다.

(1) 정직, 책임, 근면 진취, 협동

(2) 가치에 대한 신념, 이상이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

(3) 다른 사람의 인격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

(4) 질서, 규칙, 법, 사회적 관습의 존중

(5) 학교, 사회,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헌신적 봉사 정신

(6) 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 인식과 민족적 자부심

(7)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국가관과 세계관

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앞선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의 목표가 ‘국어와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한다.’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문에 소개된 위인들이 이전 교육과정에 소개되었던 인물들이 그대로 반복되어 수록된 것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양성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계속 유지 · 전수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들은 ‘국민 정신 교육에 관련된 요소가 포함된 것을 선정’해야 하며, 특히 ‘학교, 사회,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헌신적 봉사 정신’과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 인식과 민족적 자부심’에 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역시 국가를 위한 국민 기르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수사학, 언어학, 문학의 지식, 개념, 원리 등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생들의 국어(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여전히 ‘국가를 위한 국민 양성’이 국어과 전체의 목표인 것은 변함없으며 세부적인 교육과정 역시 제4차 교육과정과 흡사하다. 제5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p>문교부 고시 제87-7호 (1987.3.31) 중학교 교육과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 어 과</p> <p>가. 교육 목표</p> <p>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u>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u></p> <p>...(중략)...</p> <p>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p> <p>...(중략)...</p> <p>라) 국어과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 자료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국민 정신 교육에 관련된 요소가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직, 책임, 근면, 진취, 협동 (2) 가치에 대한 신념, 이상이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 (3) 다른 사람의 인격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 (4) 질서, 규칙, 법, 사회적 관습의 존중 (5) <u>학교, 사회,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헌신적 봉사 정신</u> (6) <u>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 인식과 민족적 자부심</u> (7)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국가관과 세계관

51)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2009

위에 제시한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국어과 전체 목표로 삼는 것이 제4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도 제4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아 인식과 민족적 자부심’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습자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주체를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등에 대한 고민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을 주체로 삼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 무엇을 내면화하려 했는가 하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으로서의 자아 인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출현한 시기는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력, 사고력, 판단력, 상상력, 직관력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제시한 창의력, 판단력과 같은 고등 정신 기능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었다. 특히 창의성은 80년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이후, 제조업 대공장 중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국어과의 기본 성격이나 목표는 여전히 ‘민족의식과 국민 정서 함양’이다. 이는 아래에 제시한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6.30. 개정 고시) 중학교 교육과정
--

국 어

1. 성격

국어과는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다. 또한, 국어과는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고,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교과이다.

국어과는 언어 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이다.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서는 의사 교환 기능으로서의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을 길러 주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준다...(이하 생략)...

2. 목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이하 생략)...

위의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부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창의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 양성’에 대한 주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어과의 기본 성격과 목표는 ‘민족 의식’과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기문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교육과정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과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의 인물이 위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으로 표출되었다.

1997년 말에 공포된 제7차 교육과정은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분리되었던 교육과정을 1학년에서 10학년에 이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심화·보충형’, ‘선택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등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아직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하 생략)...⁵²⁾

위의 교육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교육과정에 비해 ‘맥락’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학습과 학습자 위주의 학습을 강조한 제7차 교육 과정은, 과거에 비해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이 희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민 양성’의 도구로서 사용되던 전기문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기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간 훌륭한 인물들 위주로 구성되어 본래의 색채를 유지하였다. 창의적이고 학습자 위주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문에 있어서는 아직 답보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공포되었던 교육과정기준에 근거하여 성향이 유사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를 ‘애국 · 애족의 국가주의 발현’이라 묶어 살펴보았다. 과거의 교육과정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고,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추세는 약해졌지만 ‘위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간 인물’이라는 점이나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5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 1997.

볼 때,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가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검정 교과서 체제로 변환되어 과거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물들과 창의적인 학습 방법들을 제시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이데올로기의 ‘도구’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로의 전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비롯한 기존의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내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 학문 공동체, 학교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인의 행복과 성숙, 사회의 민주성·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설명 및 실천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요구를 어떻게 내재화, 체계화,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은 다양한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신장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실제’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 범주는 본질, 원리, 태도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한 후, 그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즉 본질, 원리, 태도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중심이고,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으로서의 실체는 주변이었다.

따라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상 세계,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한 편의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이 전기문에도 반영되어, 과거 단지 읽기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활용되던 것이 제7차 개정 국어교과서 중 20권에서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언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 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영화·인터넷·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과 정보·지식·문화의 수용·생산에 대해 이해하는 일이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어 교육의 내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의 매체 활용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국어 교육에서 매체의 수용을 교수·학습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사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 특정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이 일방적인지 양방향적인지의 차이, 소수의 전문가만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 일

반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의 차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담화 ·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 ·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³⁾ 이에 근거하여 ‘천재(김) 1-2’에서는 전기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 언어를 비교 · 분석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디딤돌(이) 1-1’, ‘미래(이) 1-2’, ‘새롬(권) 1-2’의 경우 전기문을 활용하여 ‘설득의 기술’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있으며, ‘비상(조) 1-1’, ‘창비(김) 1-1’, ‘천재(김) 1-1’, ‘대교(박) 2-1’, ‘비상(조) 2-1’, ‘좋은책(이) 2-1’, ‘천재(노) 2-2’의 경우 학습자가 현재 속한 공동체와 전기문 속 인물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방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하나의 가치관만을 제시하고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은 과거 이데올로기의 ‘도구’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53)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8.’에 근거한 것이다.

Ⅲ. 제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활용 방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을 내세웠다. 제7차 교육과정 역시 수준별 교육이 운영되었으나 그 내용을 국가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공통 교육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의 선정,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을 국가 수준에서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위임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의 수준을 규정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닌 단위 학교로 설정한 이유는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몇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교사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을 해석하는 권한과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하는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수준별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삭제함으로써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글의 내용, 범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사항을 ‘4. 교수·학습 방법’ 항의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운용’에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⁵⁴⁾

또한 국정 체제였던 국어 교과서 역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 중

5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심의 획일적인 과거 교과서와는 달리 학습자 위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제7차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전기문을 읽고,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오는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전기문을 직접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쓰기 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거나 전기문을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교수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문 속 위인의 일화를 통해 설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화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문은 단순히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수준에 맞추어 활용되는 ‘자료’로 변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기문이 활용되는지 활용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연계성을 중시하여 전기문이 어느 하나만의 방법으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에 근거하여 가장 중점을 둔 활용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더불어 전기문이 어떤 장르와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수록되었는지 그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전기문과 같은 대단원에 포함된 소단원들도 관련지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글쓰기를 통한 삶의 성찰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23종 중 7종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1학기 혹은 2학기 교과서를 통해 전기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전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15종 중 1종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 전기문을 다루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이후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던 전기문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와

서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그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전기문을 수록하고 있는 33권의 교과서 중, 무려 20권의 교과서가 전기문을 ‘글쓰기’ 활동을 통한 학습을 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 글을 쓰는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학년별 성취 기준’⁵⁵⁾에서 찾을 수 있다.

【7-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수필의 내용적 · 형식적 특성 이해하기
- 생활 체험에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선정하기
- 개인적인 생활 체험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기
- 생활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독자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쓰기가 자신의 체험을 성찰하게 하여 주체의 성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체험과 체험이 낳은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수필을 포함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글쓰기가 체험을 성찰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중략)... 이 성취 기준은 ‘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체험 공유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선정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위의 7학년 쓰기 성취 기준을 통해, 전기문을 단지 읽는 것에서 끝내지 않

55)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 · 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성취 기준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였다.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내용’보다는 ‘성취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근거한 것이다.

고 직접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한 이유가 ‘자신의 체험을 성찰하게 하여 주체의 성숙을 돕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7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중 ‘쓰기 교육’과 관련 있는 것 대부분이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라는 학습목표를 내세운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또한 단지 쓰기 교육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7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여 읽기 교육과의 연계성을 꾀하고,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하여 말하기 교육과의 연계성도 확보한다. 이처럼 다양한 교수방법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전기문을 직접 써 보도록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글쓰기’ 활동을 통한 전기문 학습의 필요성은 8학년 성취기준에서 ‘자서전 쓰기’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8-쓰-(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시간 순서에 따라 쓸 내용 정리하기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 글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개인의 성숙을 돕는 좋은 경험이 있고, 성숙을 방해하는 나쁜 경험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성찰의 대상이 된 경험은 개인의 성숙을 돕고, 그렇지 않은 경험은 개인의 성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서전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서전 쓰기와 읽기가 주체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서전이 갖는 이러한 성찰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서전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글을 쓰는 데 중점을 둔다...(중략)... 이 성취 기준은 ‘자서전의 형식과 특성을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8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위의 성취기준에 따르면,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전기문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서전이 갖는 고유의 성질, ‘성찰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역시 7학년 성취기준처럼 읽기 영역과의 연계성을 갖고 활용되고 있다.

결국 전기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읽기 교육과 연계한 쓰기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기문을 쓰는 활동을 제시한 20권의 교과서 대부분이 1차적으로는 전기문을 읽는 교육을 실행하고, 2차적으로 전기문을 쓰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되는 전기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취기준 ‘【7-쓰-(5)】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과 성취기준 ‘【8-쓰-(5)】 자서전 쓰기’에 해당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류한 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⁶⁾

1)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56) 나열 기준은 1학년 1학기부터 한 학기씩 높아지는 순서로 하되, 학년과 학기가 같을 시 출판사가나다순으로 한다. 본고 p32-33에 수록된 <표 19>, <표 20>, <표 21>, <표 22>에서 제시했듯이, 출판사 이름과 대표 저자 이름 약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학년과 학기는 ‘해당 학년 숫자-해당 학기 숫자’식으로 간략하게 표기한다.(예: 1학년 1학기의 경우 ‘1-1’로 표기)

(1) 대교(박) 1-1

‘대교(박) 1-1’은 쓰기교육으로서의 활동이 학습활동에 제시되어 있지만, 학습목표에서는 쓰기교육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다.⁵⁷⁾

위의 학습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쓰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단원의 길잡이에서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한 일이다. 따라서 네 편의 글을 읽으면서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여 보자.”라고 되어 있어 이 단원의 목표가 ‘글을 읽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나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전기문은 이 단원에 포함된 소단원 4개 중, 첫 번째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소단원에 수록된 ‘안네의 일기’는 전기문이 아니지만, 실존했던 인물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단원 (1)에 실린 전기문과 연계성을 갖고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단원 (1)에는 ‘바보 의사 이야기’라는 장기려 박사의 평전이 수록되어 있

57) 박경신 외, 『중학교 국어 1-1』, 대교, 2010.

어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준 그의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삶을 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인국과 비교하는 학습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를 확장시켜 주변 인물 중 장기려 박사처럼 선행을 베푼 사람을 골라 직접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이는 ‘글을 읽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나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자.’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이처럼 쓰기교육을 통해 학습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뒤이어 학습활동에 또 다른 전기문을 제시한다.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공병우 박사의 자서전인데, 이 자서전 역시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인지 써 보자.”라고 하여 쓰기교육에 관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직접 자서전을 쓰거나 소개하는 글을 쓰는 등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도록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활동이다. 함께 제시한 학습 활동 역시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를 찾아보자.’, ‘느낀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라고 하는 등 소극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들과는 달리 글쓰기를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소단원 ‘(2)안네의 일기’에서는 안네의 상황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글을 써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은 뒤, 선택 학습에서 제시한 두 편의 수필을 읽고 ‘초등학교 때 경험한 인상 깊은 일을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써 보기’라는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학습자는 타인의 경험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직접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2) 대교(왕) 1-1

대교(왕)은 앞서 제시한 7학년 성취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문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안다.
-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안다.⁵⁸⁾

위에 제시한 학습 목표는 ‘【7-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의 성취기준에 따른 것이며, 교육과정해설서에 제시했듯이, ‘【7-읽-(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와 ‘【7-말-(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교(왕)은 안철수의 자서전을 통해 글쓴이의 경험을 읽고 학습자 자신의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뒤이어 ‘현이의 연극’과 ‘인디언의 선물’이란 글을 통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설득하는 말하기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이의 연극’과 ‘인디언의 선물’은 전기문이 아니지만 안철수의 자서전과 함께 수록되어 학습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짜여있다.

58) 왕문용 외, 『중학교 국어 1-1』, 대교, 2010.

이 단원에 수록된 세 편의 글 중 유일한 전기문인 ‘내 삶의 가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안철수 연구소’라는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유명해진 안철수의 자서전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은 내성적이고 평범한 아이였던 안철수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으며 어떻게 사회의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단락별로 정리되어 있다. 마치 어린이 위인전처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락별로 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직접 제시되어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호기심 많은 아이’라는 글에서는 “나는 내성적이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라고 글쓴이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직접 제시되어 있으며, ‘노력하는 삶’에서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왔습니다.”등 안철수의 신념이 하나하나 제시된다. ‘책은 지혜와 행동 기준의 원천’이라는 글에서는 “아직도 나는 교과서와 책이야말로 지혜와 행동하는 기준을 얻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된 안철수의 어린 시절과 생활신조를 학습자들이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안철수 처럼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여 글로 써 보거나 생활신조를 쓰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가 요구하는 쓰기 활동이 간략한 것인데다가 앞서 제시된 안철수의 자서전을 모범 답안처럼 참고하면 학습자들은 쉽게 쓰기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장시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글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전기문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쓰기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지학사(방) 1-1

‘지학사(방) 1-1’ 역시 앞서 살펴본 ‘대교(박) 1-1’과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간접적인 경험을 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되돌아보는 것이 목표이다. 학습목표는 ‘대교(왕) 1-1’과 매우 유사하다.

<학습 목표>

- 가치 있는 경험이 담긴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
-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다.⁵⁹⁾

앞서 제시한 ‘대교(왕) 1-1’과 마찬가지로, 7학년 쓰기영역 성취기준 ‘【7-쓰-(5)】’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7-읽-(4)】와 【7-말-(2)】의 성취기준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에 맞추어 이 단원은 전기문, 수필,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소단원 (1)에 수록된 전기문은 실학자 정약전에 관한 평전이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에 비하면 그의 형인 정약전은 다소 학습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동화 작가가 쓴 것이라 재미있고 쉽게 풀이되어 학습이 용이하다.

전기문 ‘흑산도의 물고기 박사, 정약전’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흑산도로 귀양을 가 고생스런 삶을 이어 나가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 ‘자산어보’를 발간했다는 내용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의 삶을 통해 느낀 점이나 깨달음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글로 적는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59)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 1-1』, 지학사, 2010.

정약전과 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거나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블로그에 적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쓰기 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성찰한 내용들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있다. 블로그는 본래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자료 또는 일지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로, 최근 아마추어 혹은 중견 작가들이 인터넷에 대거 진출해 이른바 블로그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여 블로그라는 공간을 통해 창작 및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학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블로그를 이용한 글쓰기는 작가 중심의 일방적 글쓰기가 아니라 인터넷 글쓰기의 쌍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블로거들은 단순히 작품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블로그를 하나의 문학적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블로그의 장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최근 학습자들이 활발히 사용하는 블로그를 활용하여 글쓰는 활동을 거부감 없이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을 내세웠다는 점이 돋보인다.

덧붙여 ‘더 입을 거리’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이라는 평전을 수록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꿈을 이룬 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정약전의 평전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전기문이라는 점에서 앞서 배운 내용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4) 지학사(이) 1-1

이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도입부분인 ‘단원 시작하기’부터 인물의 특별한 경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다이앤 윌슨’ 이

60) 김명석, 『인터넷 소설,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 2009.

라는 여성이 환경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심하던 중,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훌륭한 환경 운동가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제시된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학습 목표>
- 나는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그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나는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⁶¹⁾

위의 학습 목표에 따르면, 전기문을 읽고 그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대교(왕) 1-1’과 ‘지학사(방) 1-1’과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보다 적극적인 쓰기 활동을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이 주로 글을 읽고 느낀 점이나 깨달음, 혹은 친구나 책을 추천하는 글을 간략하게 쓰는 활동을 제시한 것에 비해, 이 교과서는 대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자신의 체험을 글로 쓰도록 하고 있다. 체험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한 후, 이를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드는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원 구성은 소단원(1)과 소단원 (2)로 이루어져 있다. 소단원(1) ‘경험을 담은 글에 비추어 보기’는 글을 읽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추어 봄을 통해 우리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에 담긴 삶과 생각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기

61) 이용남 외, 『중학교 국어 1-1』, 지학사, 2010.

때문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글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점이다.

소단원(1)에 제시된 전기문은 일제 강점기 시절 맹아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말로 된 점자를 만든 ‘박두성’에 관한 평전이다. 모범이 되는 그의 삶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소단원(2)에서는 유학시절 가방을 도둑맞는 바람에 2년 동안 힘들게 쓴 논문을 잃어버린 경험을 담은 글이 제시되어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다시 써서 시련을 극복한 글쓴이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한 뒤, 체계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는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하여 자신의 경험을 글로 씀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5) 디딤돌(김) 1-2

이 교과서 역시 앞서 살펴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다. 제시된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글쓴이의 체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⁶²⁾

단원의 길잡이에 따르면, 경험에 관한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글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직접 글로 써야 하는 이유는 ‘글을 씌으로써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그간의 생각이 뚜렷해지고, 보다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소단원 (1) ‘변호사 시절의 회상’이라는 간디의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굳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변호사 시절 간디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간디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인물로, 자신의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거짓 증언을 했다면 처벌을 받도록 할 만큼 올곧은 사람이다. 이러한 태도라 주변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화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학습 활동에서는 이러한 간디의 생활신조를 찾아보도록 하고, 더불어 간디의 또 다른 일화를 제시한다. 백인 이발사가 이발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인종차별문제를 담고 있다. 앞서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간디의 일화와 인물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주제의 일화인 것이다. 이를 통해 간디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활동도 하고 있다. 쓰기 교육과 더불어 공동체 가치관 비교해보기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교과서를 ‘쓰기 교육’에 관한 것으로 분류한 이유는, 대단원 목표가 쓰기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습 활동이 쓰기 교육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관한 글을 짚막하게 제시한 뒤, 간디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조언하는 편지를 써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학습자들이 글쓰는 활동을 통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자.’라는 신조를 마음

62)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 1-2』, 디딤돌, 2010.

에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대단원 통합 활동에서는 읽기를 통한 삶의 성찰과 자신의 체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6) 좋은책(이) 1-2

‘좋은책(이) 1-2’에서는 대단원 ‘4. 내마음 네마음’의 소단원 (1)에 장기려의 전기문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삶과 체험이 담긴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체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특별한 경험이 담긴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글을 쓴다.⁶³⁾

글을 읽음으로써 삶을 성찰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들의 학습 목표와 큰 차이가 없다. 소단원 ‘(1) 성산 장기려’는 ‘대교(박) 1-1’, ‘비상(조) 1-1’, ‘디딤돌(김) 2-1’에서도 다루었던 장기려 박사의 전기문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의술을 행하는 인물의 모습은 학습자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아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학습 활동으로는 장기려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장기려의 평전을 쓴

63) 이승원 외, 『중학교 국어 1-2』, 좋은책 신사고, 2010.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직접 글로 써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장기려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써 보도록 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에 이어 ‘단원 다지기’에서는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전기문을 수록하여 장애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아가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사고가 더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등 직접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람의 품성과 장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건물에 숨어 살았던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수록하여 학습자들의 삶을 성찰해보도록 하고 있다. 안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유의 소중함과 고마움에 대해 글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있다.

소단원 ‘(3) 체험을 담은 글쓰기’에서는 앞서 전기문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본 것을 토대로, 자신의 체험에 관한 수필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이나 체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7) 천재(박) 1-2

‘천재(박) 1-2’에서는 대단원 ‘1. 체험과 표현’을 통해 시와 수필을 읽고, 글쓴이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뒤 자신의 체험을 직접 글로 써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있다. 대단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습 목표>

-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를 알고, 노랫말을 쓸 수 있다.
-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⁶⁴⁾

위의 학습 목표에 따라, 소단원 ‘(1) 엄마야 누나야’에서는 시를 다루고 있으며, 소단원 ‘(2) 가야 한다, 불가능은 없다’에서는 산악인 엄홍길의 경험을 담은 전기문을 다루고 있다. 이어 소단원 ‘(3) 하얀 목도리’에서는 수필을 수록하고, 체험을 글로 써 보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소단원 (2)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전기문’으로, 엄홍길이 만나푸르나에 오르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를 극복하고 무사히 산을 내려오는 내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이 수록된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글쓴이의 경험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의 글을 읽은 뒤, ‘학습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를 후회하지 않는 글쓴이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직접 글로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의 글을 읽고 깨달은 점과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적어 보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한 기사나 자료 등을 스크랩해 보고, 친구들의 것과 비교해보고, 이를 각자의 블로그에 올려보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제시하여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

64)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10.

해보도록 하고 있다.

대단원 학습이 끝난 뒤, 추가로 제시된 ‘선택 학습’에서는 어머니 덕분에 장애를 극복할 힘을 얻은 장영희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을 읽은 뒤, 앞서 해보았던 글쓰기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직접 자신의 체험에 대한 글을 써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앞서 읽었던 글 속의 인물들과 비교해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천재(노) 1-2

‘천재(노) 1-2’의 경우 대단원 ‘1. 잊을 수 없는 일’에 속한 소단원 ‘(1) 특별한 경험 읽기’를 통해 전기문을 읽고, 삶을 성찰해보는 활동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소단원 ‘(2) 생활 체험 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⁶⁵⁾

‘자신의 삶 성찰하기’를 위해 제시한 전기문은, 앞서 살펴본 ‘천재(박) 1-2’와 마찬가지로 엄홍길에 관한 글을 수록하였다. ‘천재(박) 1-2’에서는 부상을 극복하고 무사히 산을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과는 달리, 이 교과서에서는 산을 내려온 이후 다시 안나푸르나에 올라 다섯 번의 도전 끝에

65)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10.

정상에 오르는 대목까지 다름으로써 글쓴이의 의지와 신념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맨 마지막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안나푸르나는 정상을 앞두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상에 올랐다는 결과보다는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려 주었다. 안나푸르나에 오르면서 나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게 되었고, 평온(平穩)과 겸허(謙虛)를 배울 수 있었다.⁶⁶⁾

이처럼 글쓴이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천재(박) 1-2’와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 글쓴이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고 이를 글로 쓰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소단원 (2) 생활 체험 쓰기’에서는 앞서 전기문을 읽고 자신의 삶과 의미 있는 체험을 되돌아보았던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활동을 전개한다. 자신의 체험 중 의미 있던 일들을 메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이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까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 뒤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활동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제들을 보급한 이종욱 박사에게 대한 글을 수록하여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성찰을 해 보도록 하여 ‘전기문을 통한 자신의 삶 성찰’에 마무리를 짓고 있다.

(9) 해냄(오) 1-2

66) 노미숙 외, 앞의 책, 2010.

‘해냄(오) 1-2’의 경우에도, 대단원 ‘6. 경험과 성찰’의 소단원 (1)에서는 전기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였으며, 소단원 (2)에서는 앞서 생각해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⁶⁷⁾

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과 유사한 학습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소단원 ‘(1) 경험을 기록한 글 읽기’에서는 세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로 일제시대 유명한 소리꾼 임방울에 관한 평전을 수록하였다. 힘들었던 시절,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해 주었던 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글은 시인 복효근이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 대해 쓴 글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을 써 보고,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을 묘사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학습자의 입장에 적용해보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자서전으로, 어린 시절 자신을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준 담임 선생님 덕분에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와 담임 선생님의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더불어 ‘아우르기’에서는

67)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1-2』, 해냄에듀, 2010.

평생 첫걸 장사로 모은 재산을 장학 재단에 기부한 류양선 할머니에 대한 글을 수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글 속 인물처럼 남을 위한 일을 했던 경험에 관한 글을 써 보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소단원 ‘(2) 체험을 바탕으로 글쓰기’에서는 앞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을 바탕으로 직접 글을 써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성찰할 수 있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2) 자서전 쓰기

(1) 금성(윤) 2-1

‘금성(윤) 2-1’에서는 대단원 ‘7. 삶이 주는 교훈’에서 자서전을 읽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자서전을 써 보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단원 ‘7. 삶이 주는 교훈’은 3가지의 소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소단원 ‘(1) 나의 삶, 나의 기록’은 자서전에 대한 정의와 특성, 자서전을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문이다. 이를 통해 자서전을 읽거나 쓸 때에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지 직접 읽고 써보기 전에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소단원 ‘(2) 백범일지’는 일제강점기 김구의 투옥과정에 관한 부분을 보여주어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서전을 읽는 방법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익힐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소단원 ‘(3)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는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이승복의 이야기로, 이를 읽고 자서

전을 직접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성은 대단원 학습 목표와 소단원 학습 목표에서 잘 드러난다.⁶⁸⁾

대단원명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명	소단원 학습 목표
7. 삶이 주는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을 읽고, 필자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쓸 수 있다. 	(1) 나의 삶, 나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의 특성 이해하기 • 자서전을 읽는 목적과 읽는 방법 알기 • 자서전 쓰기의 과정과 다양한 표현 방법 알기
		(2) 백범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의 삶 이해하기 • 자서전을 읽고 필자의 삶의 자세 파악하기
		(3)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여 자서전 쓰기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서전 쓰기

<표 21> ‘금성(윤) 2-1’에 수록된 전기문 관련 학습 목표

소단원 ‘(1) 나의 삶, 나의 기록’에서는 크게 ‘자서전의 정의와 특성’, ‘자서전 읽기’, ‘자서전 쓰기’에 관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서전의 정의와 특성’에서는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서전 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안철수의 자서전을 짧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시대 및 사회 상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안철수의 자서전을 다룬 ‘좋은책(이) 2-1’과 유사하다. ‘자서전 쓰기’에서는

68) 윤희원 외, 『중학교 국어 2-1』, 금성, 2011.

자서전을 씀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으며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고 언급하여 자서전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사적 위인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교육과정의 경우 ‘역사적 위인’에 관한 전기문만을 교과서에 수록했던 것에 비해, 제7차 개정 교과서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도 ‘삶을 성찰하기 위해’ 자서전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자서전을 쓰는 방법으로는 ‘① 내용 떠올리기와 내용 선정하기, ② 내용 조직하기, ③ 표현하기’를 제시하고 더불어 모범 예시로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일화들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소단원 (2)에서는 소단원 (1)에서 배운 ‘자서전 읽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고 글쓴이의 삶에 대한 태도를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단원 (3)에서는 소단원 (1)에서 배운 ‘자서전 쓰기’를 활용하여 자서전을 쓸 내용 선정, 자료 수집, 연대표 작성, 자서전 쓰기 등 체계적으로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의 삶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래 가사나 명언을 인용하여 자신의 삶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내용 측면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뛰어난 자서전 쓰기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대교(왕) 2-1

‘대교(왕) 2-1’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금성(윤) 2-1’과 마찬가지로, “자서전은 반드시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만 쓰는 글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습자들이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속담이나 관용 표현, 그림이나 도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서전을 통한 삶의 성찰’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다양한 표현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단원 학습 목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쓰는 방법을 안다.⁶⁹⁾

학습 목표에 부합하여, 소단원 (1)과 (2)에서는 문학을 다루어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단원 ‘(3) 가야금 인생’에서는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가야금 배우는 것을 천시하던 시절, 굳은 의지로 가야금을 배운 글쓴이의 삶을 소개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삶에서 본받을 점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가 이중섭의 평전과 비교하여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점을 통해 자서전의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자서전 쓰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쓸 때 속담, 관용 표현, 명언이나 그림, 도표, 사진 등 어떤 것을 활용하면 효과적일지 생각하여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해보고 자서전의 표지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적 측면에 치우쳐 다른 교과서들 처럼 실제 자서전을 작성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해보고 표지를 만드는 등 소극적인 자서전 쓰기 활동

69) 왕문용 외, 『중학교 국어 2-1』, 대교, 2011.

에 그치었다.

(3) 디딤돌(김) 2-1

‘디딤돌(김) 2-1’은 대단원 ‘4. 살아가는 이야기’에 수록된 두 편의 전기문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글쓴이의 삶을 이해’하고, ‘자서전의 구성 방식과 표현 방법’에 대해 공부한 뒤 이를 토대로 ‘자서전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의 구성 방식과 표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서전에 나타난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파악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쓸 수 있다.⁷⁰⁾

위에 제시한 학습 목표에 따라, 소단원 ‘(1) 을사조약의 비분을 삭이며’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이러한 소신에 따라 행동한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자서전을 올바르게 읽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는 후에 자서전을 쓰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소단원 ‘(2) 후투티에 반한 소년’에서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 활동’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속담이나 격언을 찾아보도록 하여 자서전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서전을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70)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 2-1』, 디딤돌, 2011.

있다. ‘후투티에 반한 소년’을 읽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학습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교과서와 유사하다.

학습활동에서는 본문에 쓰인 관용적 표현과 그 효과를 파악해보거나 사진 등 시각 자료들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룸으로써 ‘효과적인 표현 기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학습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순간을 신문 기사나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여 표현한 예를 제시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나 사건을 글로 표현하게 하여 간단한 글쓰기 연습을 시도하고 있다.

소단원이 모두 끝난 뒤, ‘단원 통합 활동’에서는 ‘자서전에 들어갈 글감 선정, 개요 작성, 그림·도표·사진 등의 활용 계획 세우기, 속담·격언 등을 활용해 제목 짓기, 본격적으로 자서전 작성하기’ 등의 순서대로 활동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앞서 살펴본 다른 교과서들과 유사하다.

자서전 쓰기 등 학습 활동이 끝난 뒤, ‘더 읽을 거리’에서는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화가·시인·작가로 명성을 날린 ‘크리스티 브라운’이 자서전을 쓰는 내용을 수록하여 ‘자서전 쓰기’의 방법과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 미래(윤) 2-1

‘미래(윤) 2-1’의 경우 대단원 ‘6. 글로 쓰는 나의 삶’을 통해 자서전을 다루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다른 교과서들이 주로 학습 활동을 통해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다룬 것에 비해 이 교과서는 소단원 하나를 통째로 ‘자서전 쓰는 방법’에 할애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지 자서전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해보는 등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한 글쓰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단원 학습 목표에서 잘 드러난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쓸 수 있다.
-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⁷¹⁾

위의 취지에 맞게 소단원 ‘(1) 현실에 눈을 뜨다’에서는 인종 차별이 심하던 19세기 남아프리카에서 간디가 겪었던 일을 다룬 자서전을 수록하고, 이를 읽고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을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기차에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간디의 경험을 다룬 것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요즘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들이 ‘국가와 민족’만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이를 넘어서서 ‘인류는 하나다.’라는 주제를 내세운 것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 현 사회에 꼭 필요하다.

‘이해와 적용’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글쓴이가 시험 문제와 관련 없는 답을 쓴 행동을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보게 하여 시대 상황을 고려한 자서전 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이 아니었다면 시험 문제와 관련 없는 답을 쓴 행동은 별 의미 없는 것이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글쓴이의 굳은 신념과 애국심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글쓴이의 ‘애국심’에 관한 내용이지만, 과거 직접적으로 ‘애국과 애족의 마음을 기르자’라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위를 담담

71) 윤여탁 외, 『중학교 국어 2-1』, 미래엔컬처, 2011.

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어서 본문을 기사문으로 만드는 활동과 자서전을 읽고 광고를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서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증대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소단원 ‘(2) 나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에서는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표현 방법으로는 ‘①사진으로 표현하기, ②독백하듯이 표현하기, ③이미지와 속담으로 표현하기, ④면담한 내용으로 표현하기, ⑤이력서로 표현하기, ⑥ 그래프로 표현하기’ 등이 있으며 실제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작성된 글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서전’이란 우리가 흔히 교과서를 통해 접하는 전기문의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미지, 그래프,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습자들이 창의적으로 자서전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한 6가지 자서전 쓰는 방법에 대해 각 특징과 효과를 생각해 보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지학사(방) 1-1’과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 또는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자서전 쓰기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5) 미래(이) 2-1

‘미래(이) 2-1’에서는 대단원 ‘1. 나는 누구일까’에 수록된 전기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소단원 ‘(1) 새 책보’에서는 어른이 된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중학생 시절의 경험을 쓴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전후 어려웠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읽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소단원 ‘(2)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가’에서는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던 글쓴이의 경험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학습자들 스스로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서전을 써 보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이에 관한 대단원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서전을 쓸 수 있다.⁷²⁾

소단원 (1)에 수록된 전기문은 소설가 김원일의 자서전이고, 소단원 (2)에 수록된 전기문은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사람의 자서전으로 모두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두 편의 글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소소한 이야기들로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더해 학습자들이 쉽게 ‘자서전’에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단원 (1)은 전쟁 후 어려웠던 시절에도 따뜻한 정을 잃지 않은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험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짐작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글쓴이의 삶을 이해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평전을 짧게 제시한 뒤, 자서전과 평전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자서전의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72) 이남호 외, 『중학교 국어 2-1』, 미래엔컬처, 2011.

소단원 (2)는 글쓴이가 중학교 시절, 평소 무뚝뚝해 보이던 사환 아저씨가 들개로부터 여학생들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를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이다. 과거 교과서에서는 주로 역사적 영웅이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학습자들이 닮아야 하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인물을 닮고자 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위인’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을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일상생활 혹은 책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학습자가 스스로 ‘본받을 점’을 느끼고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글쓴이가 ‘어른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 내 자신이 진심으로 이끌리는 사람을 본받아야 하며, 이는 항상 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과거의 교과서와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서전 쓰기’에 관한 학습활동은 다른 교과서들과 유사하였다. 자신의 삶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 중 하나를 골라 구체적으로 적은 뒤 그림이나 도표, 사진 자료, 속담, 격언 등을 활용하여 직접 자서전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6) 지학사(방) 2-1

대단원 ‘4. 경험과 상상’에서는 소단원 ‘(1) 양심을 쫓아 살아온 길’에서 자서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서전을 직접 써 보는 활동을 하고, 소단원 ‘(2) 어머니와 달밤’에서는 문학 작품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두 편의 글을 감상한 후, 경험한 것이나 상상한 것들이 어떠한 구성 과정을 거쳐 한 편의 글로 완성되는지 실제로 경험해보도록 짜여 있다. ‘전기문’과 ‘문학’은 이질적인 장르이지만, ‘한 편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해보기’라는 활동을 통해 하나로 묶여 학습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단원 학습 목표

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자서전 형식으로 쓸 수 있다.
-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⁷³⁾

본고의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소단원 ‘(1) 양심을 좇아 살아온 길’로, 이는 간디에 관한 자서전이다. 총 세 편의 일화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화는 간디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육식을 먹으면 영국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간디는 친구의 꾀에 빠져 부모님을 속이고 육식을 했으나 곧 뉘우치고 육식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간디의 신념이 잘 드러난다.

두 번째 일화는 간디가 변호사 시절 알고 지내던 의뢰인이 밀수를 하다 걸리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하여 잘 해결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간디의 신념이 잘 드러난다.

세 번째 일화는 트란스발 정부의 불합리한 법령에 인도인들이 거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하여 정의롭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조리에 굽히지 않는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세 가지 일화 모두 인간적인 측면에서 간디를 바라보고 있다. 제목인 ‘양심을 좇아 살아온 길’처럼 간디의 훌륭한 가치관과 신념을 학습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73)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 2-1』, 지학사, 2011.

학습 활동에서는 간디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뒤, 자서전을 쓴 사람과 글 속 화자를 구분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자서전의 특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자서전의 정의를 제시한 뒤, 이를 참고하여 ‘회상 · 성찰’, ‘시간의 순서’, ‘고백’에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쓰도록 하여 자서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자서전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 뒤,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다양한 속담이나 격언, 관용적 표현 등을 제시하여 이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자서전을 쓰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자서전의 특성과 구성 방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자서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천재(노) 2-1

‘천재(노) 2-1’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자서전을 수록한 다른 교과서들과는 달리, 또래의 학생이 쓴 자서전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대단원 구성 방식도, 특이하게 회의 시간에 의견을 듣고 말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읽기와 쓰기 영역이 연계되어 대단원을 구성한 것과는 달리 말하기 영역과 연계된 것이다. 관련 대단원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쓸 수 있다.
-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친구들 앞에서 학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다.⁷⁴⁾

74)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2-1』, 천재교육, 2011.

학습 목표와 더불어 단원의 길잡이 에서는 이처럼 자서전 쓰기와 회의를 묶어 대단원 ‘1. 새로 여는 우리 반’에서 다루는 이유에 대해 ‘새 학기가 시작하였으니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자세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 중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소단원 ‘(1) 자서전 쓰기’로, 본문에 들어가기 다양한 사진들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단원 구성 취지에 따르면, 자서전을 쓰는 것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함’이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자서전 쓰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또래의 학생이 쓴 자서전을 본문에 수록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글로 쓴 것과 더불어, 글쓴이의 ‘인생 곡선’을 귀여운 그림과 더불어 제시하고 있어 글쓴이의 특별한 경험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학습 활동에서도, ‘다양한 표현 방법과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속담이나 격언, 명언, 사진 등을 활용한 ‘자서전 쓰기’를 제시하고 있다. ‘글쓰기’만으로는 학습자가 자칫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도록 하여 흥미를 가지고 자서전 쓰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교과서들은 ‘자서전 쓰기’로 그친 것에 비해, 여기서는 ‘자신과 친구들이 쓴 자서전을 읽어 보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까지 제시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직접 별점을 매기는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8) 교학사(남) 2-2

‘교학사(남) 2-2’에서는 대단원 ‘Ⅴ. 우리 삶의 풍경’에 두 편의 자서전을 수록하고 있다. 소단원 ‘(1) 내 인생의 동화’를 통해서 자서전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대 상황과 글쓴이의 삶을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소단원 ‘(2) 고등어와 크레파스’를 통해서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파악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는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대단원 전체를 ‘자서전 쓰기’를 위해 할애한 것이다. 이에 관련된 대단원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은 가치 있는 경험의 기록임을 안다.
- 시대 상황과 글쓴이의 삶을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쓴다.⁷⁵⁾

위의 학습 목표에 따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단원을 여는 글’에서는 자서전이 가치 있는 경험의 기록임을 설명하고,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후에 직접 자서전을 쓸 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소단원 (1)에서는 가난과 동화를 천시하던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훌륭한 동화 작가로 우뚝 선 안데르센의 자서전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서전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추가로 제시된 ‘스스로 학습 - 바보 별님’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로,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삶을 이해하는 학습 활동이 이

75)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2-2』, 교학사, 2011.

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단원 (1)의 학습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소단원 (2)에서는 자서전을 읽고,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의 경우 그냥 ‘자서전 쓰기’로 통합된 활동이 제시된 것과 달리 ‘블로그에 나를 소개하기 위해’,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학급 신문에 신기 위해서’ 등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자서전을 쓰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 학습이 끝난 뒤, ‘스스로 학습’에서는 예준석의 아버지에 대한 전기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가치 있고 중요한 사건을 골라 짧은 글로 적어 본 뒤, 이를 토대로 ‘아버지의 전기문’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자서전 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전기문을 써 봄으로써, 아버지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9) 지학사(이) 2-2

‘지학사(이) 2-2’의 대단원 ‘3. 당신과 내가 만나는 시간’에서는 세 편의 자서전을 제시한 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단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 나는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쓸 수 있다.⁷⁶⁾

76) 이용남 외, 『중학교 국어 2-2』, 지학사, 2011.

위와 같은 학습 목표에 따라, 소단원 ‘(1) 당신을 읽는 시간’에서는 세 편의 전기문을 통해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글쓴이의 삶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소단원 ‘(2) 나를 쓰는 시간’에서는 앞서 살펴본 전기문을 토대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잘 드러나도록 자서전을 쓰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소단원 (1)의 경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네의 일기’를 간략하게 제시한 뒤, 이처럼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10문 10답’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시하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다.

소단원 (1)에 수록된 전기문 중 첫 번째 전기문 ‘혈혈단신이 되어 육십 평생을 돌아보니’는 김구가 독립 운동하던 시절을 쓴 회고록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기자의 입장이 되어 글쓴이를 취재한다는 가정 하에 질문을 작성해보는 새로운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전기문 ‘네 번 쓰러져도 다섯 번 일어나라’는 안나푸르나에 네 번 올랐으나 타인을 구하다 큰 부상을 입어 등정에 실패한 엄홍길의 자서전이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에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올린다. 앞서 살펴본 ‘혈혈단신이 되어 육십 평생을 돌아보니’가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을 파악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안나푸르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쓴이가 처한 상황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제시된 ‘나의 행복’이란 자서전은 헬렌 켈러가 쓴 것으로, ‘언어의 소중함과 문법 지식 익히기’를 위해 헬렌 켈러의 전기문을 수록하였던 ‘천재(박) 1-1’, ‘중앙(이) 1-2’, ‘천재(김) 1-2’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언어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시골 마을에 놀러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행복이란 것을 느끼는 모습에 대해 수록하였다. 헬렌 켈러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시골의 숲과 들로, 단순하고 정직한 생활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이를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글쓴이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글과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과 가치관 파악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단원 (1)에서 다양한 자서전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소단원 '(2) 나를 쓰는 시간'에서는 직접 자서전을 쓰는 방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의 삶을 정리하기'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서전을 써 보도록 한다. 자서전을 쓰기에 앞서,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난 사건별 행복감 지수를 표시해보는 그래프를 작성하여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도록 한 뒤, 이를 토대로 자서전을 작성하고 블로그에 이를 올리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준별 선택 과제'에서는 부모님과 면담한 후 부모님의 연보를 작성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부모님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단원 학습이 모두 끝난 뒤, '쉼터'에서는 '내 마음을 노래하는 노래 자서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주는 느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노래들을 선정하여 시기별로 구성한 뒤, 이를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지금껏 접하지 못한 참신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자서전에 대한 흥미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 창비(김) 2-2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자서전을 읽은 후에 자서전 쓰기 활동을 실현하는 것과는 달리, ‘창비(김) 2-2’는 소단원 ‘(1) 자서전 어떻게 쓸까’에서 자서전을 쓰는 방법을 학습하고 자서전을 직접 써 본 다음, 소단원 ‘(2) 안중근 자서전’을 통해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글쓴이의 삶을 성찰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단원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⁷⁷⁾

위의 학습 목표에 따라, 소단원 (1)에서는 ‘자서전의 개념과 특성’, ‘자서전 쓰기의 의의’, ‘연보의 필요성과 작성 방법’, ‘자서전의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서전은 인물의 훌륭한 점을 중심으로 감동과 교훈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성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서전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자서전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습득할 수 있다.

‘연보의 필요성과 작성 방법’에서는 연보를 작성하여 기억을 되살린 뒤 짜임새 있는 자서전을 써야 함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서전의 효과적인 표현’에서는 속담과 격언, 그림이나 도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서전이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학

77) 김상욱 외, 『중학교 국어 2-2』, 창작과 비평, 2011.

습할 수 있도록 하여 뒤에 제시된 학습활동에서 자서전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학습 활동’에서는 앞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초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보고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여 글로 써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헬렌켈러의 자서전과 평전을 나란히 소개한 뒤, 이들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자서전의 특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단원 (2)에서는 안중근의 자서전을 수록한 뒤,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중근을 추모하는 블로그 만들기’라는 활동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안중근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 지에 관한 글을 써보고 이를 블로그에 올려 보는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본문의 학습이 끝난 뒤, ‘적용 활동’에서는 손기정의 회고록을 수록하고 이를 통해 자서전과 회고록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들의 경우 주로 ‘자서전과 평전 비교’만을 한 것에 비해, 더 나아가 자서전과 회고록의 차이점까지 생각해보도록 하여 전기문 전반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11) 해냄(오) 2-2

대단원 ‘5. 나의 삶, 나의 길’에서는 소단원 ‘(1) 자서전 읽기’를 통해 자서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글쓴이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단원 ‘(2)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앞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서

전을 쓰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단원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⁷⁸⁾

앞서 살펴본 ‘창비(김) 2-2’와 마찬가지로 소단원 (1)에는 안중근의 자서전이 수록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창비(김) 2-2’에서는 안중근의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면, 이 교과서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굳은 신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한 본문이 ‘창비(김) 2-2’보다 안중근의 강한 의지와 신념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지만, 학습 활동은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삶과 가치관 파악하기’라는 점에서 ‘창비(김) 2-2’와 유사하다.

소단원 (1)에 두 번째로 제시된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는 과거의 교과서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던 ‘연극배우’의 자서전을 소개한다. 육십 년 인생 가운데 사십 년 동안을 연극만 하며 살아왔다는 연극배우 박정자는 자서전을 통해 “나에게 연극배우로서의 자부심보다 큰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한다. 연극배우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글쓴이의 모습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극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의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진로탐색’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삶에서 닳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

78) 오세영 외, 『중학교 국어 2-2』, 해냄에듀, 2011.

각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교과서들은 자서전 쓰는 방법을 직접 글로 제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소단원 (2)에서는 만화를 통해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서전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 그물'을 통해 표현해보도록 하고 있다. 생각 그물에서 작성한 것을 시간 순서대로 표에 정리한 뒤, 관용 표현 · 비유적 표현 · 명언 · 한자성어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편지 형태의 자서전'을 작성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평소에 많이 써 보았던 편지 형식을 빌림으로써, 다소 낯설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자서전 쓰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된 전기문을 크게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와 '자서전 쓰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 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33편 중 무려 20편이 전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글을 써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교과서들이 전기문을 이해하는데 쓰기 활동을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언어로 옮겨서 표현해 내는 고등 정신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쓰기 능력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일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수 기능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전기문에서 활용된 '글쓰기'는 '사고력 증진 도구로서의 쓰기', '범교과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쓰기', '긍정적 정서 강화 수단으로서의 쓰기'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쓰기 활동을 실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력 증진 도구로서의 쓰기’이다.

쓰기는 단순히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엮어 나가는 단순 기능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화하여 재조정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쓰기 기능의 가장 중요한 효용 가운데 하나로 쓰기의 사고 형성 측면을 손꼽아 볼 수 있다. 쓰기는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신비한 마력이 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 아이디어들 간의 연결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앎으로서의 지식을 생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쓰기 활동을 통해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대상들에 대해 통찰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활동을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힘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쓰기 교육이야말로 학습자들의 고등 정신 기능으로서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할 것이다.

둘째로, ‘범교과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쓰기’이다.

학습이란 선수 학습에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 배우는 내용을 서로 결합해 가는 인지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일정한 구조적 틀에 ‘적용’하고, ‘분석’·‘종합’·‘평가’하는 일련의 인지 과정을 거치는 쓰기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쓰기는 지식을 종합하고 확장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제 사태에 적용해 봄으로써 더 깊이 있는 앎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긍정적 정서의 강화 수단’이다.

쓰기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불안,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이 글쓰기 치료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글쓰기는 감정을 조절하고 치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표현적 쓰기 활동은 ‘거리 두기’를 통해 주변 상황과 자신의 내면 심리를 차분히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성찰의 공간 속에서 혼란스러운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긍정적 정서와 태도를 갖게 해 준다. 자유롭게 글 쓰는 행위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억압된 정서를 분출하기도 하고,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기도 한다.

희망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안네 프랑크가 매일의 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추스르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쓰기는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⁷⁹⁾

이처럼 세 가지 차원에서 쓰기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들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서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글쓴이의 삶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으며 인생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어디

79) 최미숙 외, 앞의 책, 2009, pp. 241-243.

로 가고 있는지'등을 스스로 물어보아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 활동을 통한 전기문 학습은 학습자의 자아 성장을 돕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올바른 언어 사용 학습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문 중 세 권의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네 편이 '올바른 언어 사용 학습'을 위해, 전기문을 활용하였다. 과거의 경우, 전기문을 주로 감명 감동과 교훈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읽기 영역에서 전기문을 다루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문법 범주에서까지 전기문을 다루게 된 것이다. 문법 영역에서 전기문을 다루는 교과서 3권 중, 두 권은 피동과 사동 표현에 관한 학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권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일곱 가지 중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와 관련 있어 보인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국어과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목의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체 언어 역시 기호라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어과에서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체 담화·글의 창의적,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외

연을 확장할 수 있다.⁸⁰⁾

이러한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기문을 활용한 매체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습 활동의 성향에 따라 ‘언어의 소중함과 문법 지식 익히기’와 ‘매체 언어’로 분류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언어 사용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출판사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언어의 소중함과 문법 지식 익히기

(1) 천재(박) 1-1

‘천재(박) 1-1’에서는 대단원 ‘5. 언어의 세계’에서 전기문을 다루고 있다. ‘5. 언어의 세계’에 속한 소단원은 3개로, 소단원 ‘(1) 공감하며 읽기’가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다. 소단원 ‘(2) 맥락에 맞게 읽기’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이고 소단원 ‘(3)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수필을 통해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학습하는 내용이다. 대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문과 함께 수록된 글 모두 ‘언어 사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나 글을 통해 언어 사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는 학습 목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습 목표>

- 글쓴이의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 표현 의도에 따라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⁸¹⁾

8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14.

81) 박영목 외,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2010, p.190.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따르면 ‘글쓴이의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합당한 전기문은 많다. 그러나 ‘감동적인 경험을 전하는’ 많은 전기문 중 굳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수록한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도는 단원의 길잡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단원에서는 ‘언어’와 관련하여 세 편의 글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각·청각 장애인 언어를 배운 경험을 담은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도록 합니다. 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쓴 글을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어 보고,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도 공부해 봅시다.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⁸²⁾

이에 본격적으로 헬렌 켈러 자서전을 학습하기에 앞서, ‘함께 나누기’라는 부분에서는 언어가 없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글의 본문 위에는 이 글이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말을 익히게 되는 과정을 쓴 글’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오른쪽 날개부분에 자서전의 제목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를 통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상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은 이 글을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학습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과서 본문 역시 ‘언어 사용’과 관련지어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이 인도해 처음 단어를 배우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고, 손바닥에 사물의 명칭을 적는 방식으로 ‘인형’, ‘물’처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물의 이름부터 ‘사랑’, ‘생각’처럼 추상적인 관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82) 박영목 외, 앞의 책, 2010, p.191.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뒤이어 제시된 학습 활동에서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사물의 명칭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종류가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여 사물의 명칭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처럼 헬렌 켈러 자서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문법에 관한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학습자가 ‘언어 습득 과정’과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 뒤, 뒤에 제시된 소단원 (2)와 (3)을 통해 체계적으로 맥락과 피동·사동 표현에 대해 학습도록 지도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중앙(이) 1-2

‘중앙(이) 1-2’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천재(박) 1-1’과 마찬가지로 헬렌 켈러 자서전을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문을 활용했던 ‘천재(박) 1-1’과는 달리, 전기문과 관련하여 ‘품사’를 배우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대단원 학습 목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습 목표>

-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한다.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피동과 사동의 개념과 용법을 이해한다.⁸³⁾

위의 학습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원에서는 국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품사에 대한 이해와 피동·사동 표현을 사용법을 학습하고자 한다. 대단원명 역시 ‘2. 낱말의 갈래’로 품사와 관련 있음을 짐작하게 하며, 포함된 소단원은 ‘(1) 바른 말 바른 생각’, ‘(2) 낱말의 갈래’, ‘(3) 피동과 사동’으로 모두 문법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 중 헬렌 켈러의 자서전은 ‘(2) 낱말의 갈래’에 속해 있으며 ‘천재(박) 1-1’에 수록되었던 자서전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문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 두기’에서는 ‘품사’의 기능과 형태를 설명한 뒤, 헬렌 켈러가 의사 표현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낱말의 뜻과 특성을 어떻게 깨우쳐 나가는지 살펴보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품사를 전기문을 통해 배움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성취기준 ‘【7-문법-(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이 성취 기준은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의 특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탐구해 가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단어들을 일정한 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깨달아,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략)...

83) 이숙 외, 『중학교 국어 1-2』, 유웨이중앙교육, 2010, p.57.

학습자들이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탐구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⁸⁴⁾

위에 제시한 성취기준에 따르면,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학습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문과 같이 학습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통해 품사의 개념과 분류를 학습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과 함께 제시된 학습활동은 크게 ‘내용 정리’와 ‘목표 수행’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용 정리를 위한 학습활동 역시 문법 영역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내용 정리’에 해당되는 학습활동은 아래와 같다.

- ◆ 헬렌에 ‘껌’, ‘모자’ 등의 낱말과 ‘앉다’, ‘서다’, ‘걸다’ 등의 낱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익혔는지 생각해 보자.

- ◆ 헬렌이 ‘생각하다’, ‘사랑하다’와 같은 낱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⁸⁵⁾

위에 제시된 ‘내용 정리’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단순히 전기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문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품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제시된 ‘목표 수행’에서는 전기문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여,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직접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전기문을 활용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8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44.

85) 이숙 외, 같은 책, 2010, p.70.

2)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 알기

(1) 천재(김) 1-2

앞서 살펴 본 두 권의 교과서가 전기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소중함과 품사 등 문법에 관한 기초 지식을 다루었다면, ‘천재(김) 1-2’에서는 ‘매체 언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대단원명 역시 ‘3. 매체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매체와 관련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학습 방향은 ‘학습 목표’를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학습 목표>

-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 매체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다름을 이해한다.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한다.⁸⁶⁾

위의 ‘학습 목표’에 맞게, 대단원 ‘3. 매체와 함께’는 소단원 ‘(1)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를 통해 ‘언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 ‘(2)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짜여있다. 이는 성취기준 ‘【7-문법-(1)】’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문법-(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86) 김대행 외,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2010.

-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매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매체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 및 매체가 언어 사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되, 특히 매체 언어 사용 방식이 갖는 특성을 국어 생활 문화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글쓰기, 문자 메시지 등의 언어 사용 방식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중략)...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⁸⁷⁾

위의 성취 기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천재(김) 1-2’는 다양한 매체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취기준 **【7-듣-(2)】**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활용된 전기문과 ‘설득의 기술’로 활용된 전기문을 연계하여 지도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단원 ‘(1)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를 살펴보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식 마당 - 매체와 언어생활의 변화’를 통해 매체의 정의와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생활 파악하기에 관해 간략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체언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취지로 보인다.

소단원 (1)에 수록된 전기문은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라는 헬렌 켈러

8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p.42-43.

의 자서전으로,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과 동일한 내용이다. 소단원 학습 목표 역시 ‘① 헬렌 켈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주목한다, ② 언어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하며 읽는다.’로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학습 활동에서 다른 교과서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다른 교과서들처럼 헬렌 켈러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나 언어의 역할을 알아보는 활동도 제시되어 있지만 헬렌 켈러가 배운 ‘수화’나 ‘점자’를 제시하고, 이처럼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은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새로운 활동을 제시한다. 음성을 매체로 활용하느냐 문자를 매체로 활용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을 통해 매체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적용 마당’에서는 티베트에 있는 천연 염정에 관한 글과 사진, 동영상 자료를 제시한 뒤 이 중 가장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매체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말(음성 언어) → 글(문자 언어) → 활자 · 인쇄술 → 전화 → 라디오 · 텔레비전 →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생겨난 순서를 표로 제시한 뒤, 이에 따른 언어생활의 변화를 정리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소단원 ‘(2) 아름다운 사람’에서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식 마당’에서 매체의 특성과 그에 맞는 언어 사용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다. 소단원 목표 역시 ‘① 매체별로 다루는 내용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보기. ② 매체별로 언어 사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되어있어 이 단원을 통해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를 다루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를 알기 위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에 관한 잡지 기사⁸⁸⁾와 인터넷 기사를 함께 수록하여 비교하고 있다. ‘장미

란'이라는 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잡지'와 '인터넷'이라는 다른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 댓글까지 모두 교과서에 수록하여 댓글 속 이모티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 활용하는 언어인 이모티콘과 일상 언어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불어 장애를 극복하고 올림픽 메달을 딴 수영선수 '나탈리 뒤 투아'의 신문 기사를 수록하여 잡지 · 인터넷 · 신문 등 세 가지 매체가 의사소통 방식 면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제시된 기준에 따라 비교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적용 마당'에서는 라디오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제시하여 매체별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시한 본문을 텔레비전 · 휴대폰 · 라디오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매체의 특성을 잘 살린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한 심화 학습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된 전기문을 살펴보았다. 총 3권의 교과서에 수록된 네 편의 전기문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 중 3편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으로 내용까지 모두 동일했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다루었다는 헬렌 켈러 자서전의 내용상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었다.

'천재(박) 1-1'의 경우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언어의 습득 과정과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에 그쳐 가장 소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자서전에서 헬렌 켈러가 사물의 명칭을 배우는 것에

88) 교과서에는 장미란에 대한 잡지 기사로 소개되어 있지만 자서전의 형식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었다.

착안하여 지역이나 문화에 따른 명칭의 차이에 관한 학습활동을 제시하였지만, 그 밖에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중양(이) 1-2’의 경우 헬렌 켈러 자서전을 활용하여 품사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어 ‘천재(박) 1-1’보다 전기문을 적극적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품사의 기능과 형태에 관해 체계적으로 학습한 뒤, 헬렌 켈러 자서전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여 품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흥미로운 문법 수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천재(김) 1-2’은 앞서 살펴 본 두 권의 교과서가 전기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소중함과 문법에 관한 기초 지식을 다룬 것과는 달리 ‘매체 언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소단원 ‘(1)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앞서 살펴본 두 권의 교과서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음성을 매체로 활용했을 때와 문자를 매체로 활용했을 때의 의사소통 차이를 다루는 등 ‘매체 언어’에 초점을 맞춘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이 새롭다. 더불어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생겨남에 따른 언어생활의 변화를 정리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소단원 ‘(2) 아름다운 사람’에서는 잡지 · 인터넷 · 신문 기사를 함께 수록하여 세 가지 매체가 의사소통 방식 면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제시된 기준에 따라 비교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시된 글을 텔레비전 · 휴대폰 · 라디오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보거나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매체의 특성을 잘 살린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매체 언어’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교육과정의 경우,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문은 어느 교육과

정 교과서에 수록되었느냐와 상관없이 내용, 학습 목표, 학습 활동까지 유사한 경우가 많았으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동일한 인물의 자서전을 수록하였어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설득의 기술 훈련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중 세 권의 교과서가 ‘설득의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데에 전기문을 활용하였다. ‘설득의 기술’로 활용된 전기문의 경우, 대단원 학습 목표가 ‘호소력 있게 말하기’ 혹은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 파악하기’와 관련되어 광고와 함께 수록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취기준 ‘【7-듣-(2)】’, ‘【7-말-(2)】’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듣-(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 언어 표현이나 이미지 구성 방식 파악하기
- 아이디어 생성 과정 및 기획 의도 추론하기
- 광고의 신뢰성과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접하는 광고를 설득적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광고의 언어 표현과 이미지 구성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되, 시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광고를 통한 설득 내용과 광고 전략 사이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중략)...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언어 표현이나 이미지 구성 방식 파악하기’는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⁸⁹⁾

위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광고를 설득적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광고와 더불어 전기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시된 전기문은 ‘설득의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호소력 있기 말하기’라는 학습 목표도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성취 기준 【7-말-(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7-말-(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상대의 처지 이해하기
-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생성하기
- 상대와 상황에 알맞은 표현과 어조로 말하기
- 정서적 공감과 인격적 감화의 중요성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대화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일방적 설득보다는 쌍방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야 한다.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의 요소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략)...

대화에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용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화자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용의 합리성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타당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격적 신뢰는 화자의 평소 언행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유대감은 공통의 경험과 가치 기반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화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와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대화 상대와 상황에 맞는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고 어조를 조절하는 것도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생성하기’는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이하 생략)...90)

위의 성취 기준에 따르면, ‘【7-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

89)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26.

9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30.

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교육으로서 활용되는 전기문과 함께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호소력 있게 말하기’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등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의 요소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전기문을 출판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디딤돌(이) 1-1

‘디딤돌(이) 1-1’의 경우 대단원 ‘Ⅵ. 공감과 설득’의 소단원 ‘(1) 저도 사탕을 좋아합니다.’에서 간디 · 한석봉 · 소대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소단원 ‘(2) 마음만 있다며 나눌 수 있습니다.’에서 광고 속에 담겨 있는 설득의 전략을 다루는 것에 앞서, 쉽고 재미있는 위인의 일화를 활용하여 설득의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대단원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⁹¹⁾

위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여,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 공익 광고 한 편을 사진과 함께 제시한 뒤, 이 광고가 주는 설득의 효과를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가 설득하기 위해 어떤 생각으로

91)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1-1』, 디딤돌, 2010.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보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뒤, 이어서 소단원 (1)에서 3편의 일화를 통해 일화 속 인물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본문 첫 번째 제시된 ‘간디와 사탕’이라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아이가 사탕을 좋아해 이가 썩었으니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해달라며 아들을 데려온 여인에게 간디가 4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다. 간디 역시 사탕을 먹던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사탕을 끊어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화이다.

두 번째 제시된 ‘한석봉과 어머니’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절에 들어가 공부 한지 3년 만에 석봉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불을 끈 뒤 석봉에게 글을 쓰게 하고 자신은 떡을 썰었는데 석봉의 글씨는 엉망인 반면 어머니의 떡은 고르게 썰려 있었다. 이를 통해 ‘중간에 그만두고 절을 나온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다. 석봉의 어머니가 단지 말로만 훈계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석봉이 직접 글을 쓰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게 함으로써 공감을 얻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세 번째 제시된 ‘어부지리(漁父之利)’는 다소 낯선 인물인 ‘소대’가 등장하지만 학습자들이 들어봄직한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나라에 기근이 발생하자, 조나라에서 쳐들어오려 한다. 그러자 소대가 조나라에 찾아가서, 조개와 물새가 서로 싸우자 결국 지나가던 어부만 좋은 꼴이 되었다는 ‘어부지리’의 예를 들어 조나라와 연나라가 싸울 경우 이웃에 있는 진나라만 좋은 일이 된다고 설득하여 전쟁을 막는다. 직설적으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개와 물새의 이야기처럼 쉬운 예를 드는 것이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자

신의 의견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 세편의 일화를 통해, 각각 듣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낸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설득의 기술’이 무엇인지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미래(이) 1-2

‘미래(이) 1-2’는 앞서 살펴본 ‘디딤돌(이) 1-1’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설득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간디의 일화를 수록하였다. 대단원명 ‘3. 따뜻한 말, 힘 있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득의 기술’을 위한 학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소단원 ‘(1) 열보다 큰 아홉’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이 글을 읽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고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디딤돌(이) 1-1’에는 없었던 활동으로 직접 글을 써 봄으로써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히고 이를 소단원 ‘(2) 설득의 기술’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소단원 (2)는 ‘디딤돌(이) 1-1’에서 아이가 ‘사탕’을 좋아하는 걸로 제시된 것과 달리, ‘설탕’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맥락과 제시하는 주제는 같다. 앞서 학습한 소단원(1)과 (2)를 통해 소단원 ‘(3) 광고로 말해요’에서 광고가 가진 설득의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습 목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학습 목표>

-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⁹²⁾

위의 대단원 학습 목표 중, 간디의 일화에 해당되는 학습 목표는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간디의 일화가 광고 속 설득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맥락에서 수록된 만큼, 전체 학습 목표를 모두 살펴보았다.

교과서에 수록된 ‘간디와 설탕’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디딤돌(이) 1-1’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학습 활동에서는 ‘디딤돌(이) 1-1’와는 달리 역할극을 통해 상대를 설득해보는 모둠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둠 활동을 통해 직접 상대방을 설득해보는 행위를 통해 글로 배운 ‘설득의 기술’을 몸에 체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새롭(권) 1-2

‘새롭(권) 1-2’의 경우 위인의 일화가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대단원 ‘3. 사람을 이어주는 말과 글’의 ‘더 읽을 거리’에 ‘잭 웰치와 어머니’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함께 제시된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이 없다. 그러나 글 옆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격려의 글이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라고 수록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취지에 따르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만이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의 ‘설득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어머니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말더듬이었던 잭 웰치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설득의 기술’이란 무

92) 이남호 외, 『중학교 국어 1-2』, 미래엔컬처, 2010.

엇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켜, 더 나아가 변화시킨다는 내용에 있어서 ‘설득의 기술’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여 이곳에 포함시키어 함께 다루었다.

지금까지 ‘설득의 기술’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된 전기문을 살펴보았다. 총 3권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문을 활용하였는데, 모두 짧은 ‘일화’형식으로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인의 일대기 중에서 ‘설득의 기술’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3권의 교과서 중 2권의 교과서가 간디와 관련된 일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학습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미래(이) 1-2’는 역할극을 통해 상대를 설득해보는 모둠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기문을 통해 배운 ‘설득의 기술’을 내면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은 학습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창의성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문을 활용하여 ‘설득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사회 · 문화적 맥락 인식

언어 활동은 진공 상태가 아닌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은 상황 맥락, 사회 ·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범주인 본질, 원리, 태도에서 선정된 지식이나 기능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지식이나 기능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학습자를 형성하여 왔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언어 활동이 갖는 사회성, 대화성, 관계성, 소통성을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지식, 기능 외에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⁹³⁾ 특히 전기문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이해하기’에 활용되고 있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동체 및 글쓴이의 가치관’을 비교하는데 활용되는 전기문과 ‘시대 및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전기문,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가치관 비교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중 세 권의 교과서가 가치관을 비교하는 데에 전기문을 활용하였다. 글쓴이의 가치관과 학습자의 가치관, 혹은 글쓴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학습자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취기준 ‘【7-(읽)-4】’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성취기준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3)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p.35-36.

【7-(읽)-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특성 이해하기
-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기
-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 글쓴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윤리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읽기가 단순히 글의 해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 정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알고, 그러한 읽기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읽기는 직접 경험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타인의 가치 있는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얻게 된다. 읽기 활동의 이러한 의의를 깨닫고,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찰적 읽기를 생활화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독서의 다양한 효용은 학습자 자신의 독서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는 읽기 활동의 효과를 학습자의 체험과 관련 지어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읽기를 통해 접하게 된 다른 사람의 삶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공감 혹은 거리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이때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현재 학습자 개인 및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기록한 글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본받을 만한 경험을 소재로 한 글에는 신문 기사, 수기, 회고록, 전기문 등 다양한 글이 포함된다...(이하 생략)...

글을 읽고 경험에 공감하거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된 전기문에도 모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의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 요소의 예】’ 중에서 특히 네 번째 내용 요소의 예가 ‘공동체 가치관 인식’으로서 전기문이 활용된 것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성취기준은 글의 수준과 범위에 ‘전기문’을 설정하고, “읽기가 단순히 글의 해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 정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알고, 그러한 읽기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라고 하여 전기문 고유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읽기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교육과정이 전기문은 일방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을 찬양하는 가치관을 주입시키려 했던 것에 비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때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현재 학습자 개인 및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한다.”라고 하여 가치관에 대해 성찰할 기회만을 제공할 뿐,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판단은 학습자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어 국가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비상(조) 1-1

‘비상(조) 1-1’에서는 ‘대교(박) 1-1’과 ‘좋은책(이) 1-2’와 마찬가지로 장거리에 관한 전기문을 수록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이 전기문을 ‘쓰기 교육 제재’로 활용한 것과는 달리 ‘가치관 비교’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조) 1-1’이 제시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 글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읽고, 나의 경험과 비교한다.
- 나와 공동체의 가치관을 글 속의 가치관과 비교하고 반성한다.

- 읽기가 나와 내가 속한 사회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안다.⁹⁴⁾

위의 학습 목표에 따라, 6.25 전후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의술을 펼친 장기려의 삶에 대한 글을 수록하고, 그가 추구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그런 그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 본받을 점과 반성할 점을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도 제시한다.

뒤이어 ‘선택 학습’에서는 나라 혹은 시대마다 다른 아름다움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조건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여 공동체의 가치관을 비교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손가락이 한 손에 두 개씩 밖에 없고 다리도 짧지만 피아니스트가 된 이희아의 전기문을 수록하여 그녀의 삶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활동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간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 있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가치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창비(김) 1-1

‘창비(김) 1-1’은 대단원 ‘1. 나를 키우는 만남’에서 소단원(2) 제주의 빛 김만덕’이라는 전기문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94) 조동길 외, 『중학교 국어 1-1』, 비유와 상징, 2010.

<학습 목표>

-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쓴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윤리를 비교할 수 있다.⁹⁵⁾

학습 목표는 다른 교과서들과 유사하지만,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김만덕이 속한 공동체가 여성을 바라본 관점과 오늘날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교과서에도 ‘유관순’, ‘김마리아’, ‘곽낙원’, ‘퀴리부인’등 여성 인물을 ‘위인’으로 삼은 전기문이 많이 수록되었지만,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독립 운동가’로서나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루어졌다. ‘여성’에 대한 관점을 시대 상황 · 공동체별로 비교한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에서도 보인다. ‘여성’의 몸으로 당시 많은 제약에 묶여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한다. 후에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높은 관직에 오른 ‘남성’들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굶어 죽어가는 제주도민을 살린다는 내용이다. 과거 ‘독립운동가’로서 존재하던 여성이 아니라, 시대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진취적이고 인간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학습활동에서는 면담의 형식으로 신사임당을 소개하고 있는데,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신사임당’보다 ‘뛰어난 화가로서의 신사임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모두 과거의 여성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여성상’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95) 김상욱 외, 『중학교 국어 1-1』, 창작과 비평, 2010.

이처럼 학습자들에게 있어 현대적인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양성평등관점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적용 활동’에서는 유기농 기법으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을 세워,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이 농장 생활을 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원경선’ 할아버지에 관한 글을 수록하고 그의 가치관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 활동’에서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아를 낳았지만 아이와 첫 대면한 순간 놀라거나 좌절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한 어느 산모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그녀의 가치관과 학습자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글쓴이 혹은 글쓴이가 속해있는 공동체마다 다른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천재(김) 1-1

앞서 살펴본 성취기준 ‘【7-(읽)-4】’에 따르면, 이 성취기준은 ‘【7-(쓰)-5】’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재(김) 1-1’의 경우 공동체 가치관 인식과 더불어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가치관 인식’이 1차적인 목표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쓰기 활동’을 제시한 만큼 ‘1) 쓰기 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4) 가치관 비교’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 교과서의 대단원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⁹⁶⁾

위에 제시한 학습 목표에는 ‘공동체 가치관 인식’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 단원에서는 글쓴이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에 대해 공부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경험에 공감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가져 봅니다.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글쓴이의 가치관을 견주어 보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생활 속의 깨달음’이라는 대단원에 속한 소단원 3개 중, 전기문은 소단원 (3)에 수록되어 있다. 소단원 ‘(3) 탈출’은 글쓴이가 일제 강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가 갖은 고난을 겪고 탈출해, 임시 정부로 가서 항일 운동에 투신하기까지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수기로, ‘글쓴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 파악하기’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윤리 비교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교과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식 마당’에서는 ‘공동체 가치관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체 가치관 인식 및 비교’에 관한 학습을 돕고 있다.

‘이해 마당’에서는 글쓴이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그의 가치관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시대 상황을 알아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만약 학습자 자신이었더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였을지 비교해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글쓴이와 학습자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도록 하고 있다.

‘적용 마당’에서는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 ‘이다도시’가 시어머니와의

96) 김대행 외,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2010.

가치관 차이로 인해 겪은 일화를 제공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소속된 공동체 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대처 방안까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현 사회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글을 읽고 자신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정리하고 이에 공감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 나아가 글을 읽고 간접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 글로 써보도록 하여 ‘글을 읽는 것은 직접 경험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시대 및 사회 상황 파악

전기문을 통해 시대 및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성취기준 【8-읽-(4)】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 및 그에 따른 내용요소는 아래와 같다.

【8-읽-(4)】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자서전의 특성 이해하기
- 글쓴이의 삶의 자세 추론하기
-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글쓴이의 삶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기록으로서의 글의 기능과 성찰로서의 글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면서 글과 삶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인생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필요한 성장 과정인중학생 시기에 가치 있는 삶의 진솔한 기록을 읽는 경험을 통해 좋은

글을 스스로 찾아 읽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 있는 체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기록한 글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성장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을 기록한 전기문과 자서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자서전에 나타나는 진솔한 내면 세계의 표현과 지나친 주관적 판단 등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⁹⁷⁾...(중략)... 자서전을 읽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경험, 그리고 성찰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대와 지역이 다른 인물들이 자서전을 읽음으로써 이 세계의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삶의 폭을 넓히게 되어 풍부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서전 읽기의 목적을 인식하고, 글쓴이의 삶을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⁹⁸⁾

위의 성취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문을 통해 시대 및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글쓴이의 삶을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다.

‘인생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필요한 성장 과정인 중학생 시기에 가치 있는 삶의 진솔한 기록을 읽는 경험을 통해 좋은 글을 스스로 찾아 읽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 있는 체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기록한 글을 읽는 것’은 굳이 ‘시대 및 사회 상황 파악하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문 그 자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효과로 보인다.

또한 시대 및 사회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활동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도 과거에는 주로 평전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다.

97) 교육과정해설서를 비롯한 몇몇 교과서에서는 ‘자서전’과 ‘전기문’으로 분류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전기문’이란 ‘자서전’을 비롯하여 ‘평전’, ‘열전’, ‘행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전기문’이라 지칭한 것들은 모두 작가가 역사적 자료를 선정하고 해석하여 정리한 ‘평전’에 해당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평전’으로 분류한다.

9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62.

“이 성취 기준은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쓰기 교육으로서 활용된 자서전과 함께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전기문을 읽고 그 속의 시대 및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교과서는 총 4권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교(박) 2-1

‘대교(박) 2-1’은 단원의 길잡이에서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 기록한 글, 즉 자서전을 읽을 때에도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 및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 그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학습 목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 자서전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삶을 시대 및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⁹⁹⁾

이러한 학습 목표에 맞추어 이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3. 그 시대, 그 사람 이야기’를 모두 ‘시대 상황 파악하기’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소단원 ‘(1) 국치비가’와 소단원 ‘(2) 수난시대’는 문학 작품으로서 등장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과 함께 수록된 소단원 ‘(3) 하얼빈

99) 박경신 외, 『중학교 국어 2-1』, 창작과 비평, 2011.

역에 올려 퍼진 총성'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자서전'으로서 이를 쓴 인물의 삶을 시대 및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과거 교육과정의 경우 전기문은 전기문끼리 묶어 한 단원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문학'과 '전기문'이라는 전혀 다른 장르도 '시대 상황 파악하기'라는 주제가 같으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여 장르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 수록된 자서전 '하얼빈 역에 올려 퍼진 총성'은 안중근 의사에 관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읽어야 글쓴이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 아니었다면, 타인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 볼 때, 그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과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설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학습 활동은 크게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선택 학습'으로 나뉘어 있다.

'내용 학습'에서는 글쓴이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 및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글쓴이의 행적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 상황을 고려한 글쓴이의 삶'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 학습'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전을 소개하여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자서전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선택 학습'으로 연결되어 헬렌 켈러의 자서전과 평전을 놓고 그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시대 상황과 자서전·평전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비상(조) 2-1

‘비상(조) 2-1’의 대단원 ‘5. 글 속에 담긴 우리의 삶’에서는 소단원 ‘(1) 나의 삶과 아버지’라는 자서전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인물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학습 목표>

-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 시대적 · 사회적 배경,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며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
- 글 속의 전통적 가치관을 현재의 삶과 비교하여 지혜를 얻는다.¹⁰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신사임당의 시를 통하여 신사임당이 현대에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이 아닌 ‘독립 운동가’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위인을 다루었던 과거의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활동이다.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자서전, ‘고등어와 크레파스’는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만화가 이현세가 쓴 것이다. ‘시대 및 사회 상황’하면 자칫 조선시대나 일제 강점기 등이 떠올라 학습자들이 이질감을 느끼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길 수 있는데 비해, 이 작품은 비교적 최근에 가까운 시대 배경을 가졌으며 학습자들에게 친근한 인물이 쓴 것이라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학습자의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과 흡사하여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 조동길 외, 『중학교 국어 2-1』, 비유와 상징, 2011.

학습활동으로는 ‘고등어와 크레파스’에 나타난 자서전의 특징을 이해하고, 글 속에 나타난 시대상황을 찾아본 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한 자서전을 써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문을 평전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통해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글을 읽을 때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하는 이유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대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도록 하여 ‘전기문을 통한 시대 및 사회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을 학습자들이 확실히 인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3) 좋은책(이) 2-1

‘좋은책(이) 2-1’는 대단원 ‘5. 내 삶의 발자취’를 모두 3가지의 전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소단원 ‘(1) 노력으로 성장하는 삶’은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안철수의 자서전이며, 소단원 ‘(2) 임시 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소’는 독립운동가 김구의 자서전, 소단원 ‘(3) 나무하는 노인’은 조선 시대의 학자 박세당이 자신의 무덤 앞에 세우는 풋돌에 새기기 위해 쓴 글로 현대의 자서전과 비교하라는 취지에서 수록되었다. 소단원 (1)의 경우 컴퓨터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라면 불가능 했을 것이며, 소단원 (2)의 경우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단원 (3)은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현대와의 시대 및 사회적 상황을 비교하여 읽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세 편 모두 ‘시대 상황’과 관련 지어 있으며, 이는 학습 목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가 지닌 삶의 자세를 파악한다.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¹⁰¹⁾

교과서 본문을 학습하기에 앞서 ‘단원 펼치기’에서는 ‘박지성’, ‘제인 구달’, ‘안중근’, ‘간디’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여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끈다. 이어 소단원 (1)에서는 주로 인물의 삶의 자세 혹은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다. 소단원 (2)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김구가 임시 정부의 문지기를 시켜 달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소단원(3) 역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박세당의 삶의 자세와 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서전을 평전으로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여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모두 위에 제시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이다.

더불어 ‘단원 다지기’에서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제시하여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삶의 자세 파악하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도록 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 서자 출신의 학자 이덕무의 자서전을 통해 두 번째 학습 목표였던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읽어 보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된 학습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확실하게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천재(노) 2-2

‘천재(노) 2-2’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교(박) 2-1’과 마찬가지로 문학작품과 함께 전기문이 수록되어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이해하는 활동이

101) 이승원 외, 『중학교 국어 2-1』, 좋은책 신사고, 2011.

이루어졌다. 대단원 ‘1.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속한 소단원 ‘(2) 자서전 읽기’에는 ‘좋은책(이) 2-1’와 마찬가지로 김구의 ‘백범일지’가 수록되었으나, ‘좋은책(이) 2-1’에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는 부분을 발췌한 것과 달리 ‘천재(노) 2-2’의 경우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옥에 갇혔으나 당당함을 잃지 않은 김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도입 학습’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명성황후의 영정을 시해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록하고,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추측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시된 학습 목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¹⁰²⁾

위에 제시된 학습 목표에 따라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 설명한 뒤,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문의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에서 김구의 행동을 생각해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과 김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자서전과 평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성취기준 ‘【8-읽-(4)】’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대단원의 마무리에서는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정리하고,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할 때에도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여 상황 맥락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

102)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2-2』, 천재교육, 2011.

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 ·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전기문을 이해하는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공동체 혹은 글쓴이의 ‘가치관 비교’로서 활용된 전기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비상(조) 1-1’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치료비를 받지 않고 의술을 펼친 장기려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는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창비(김) 1-1’의 경우 김만덕과 신사임당의 진취적인 가치관을 내세워 현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농장을 꾸려간 원경선과 장애아를 낳고도 좌절하지 않은 어느 어머니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천재(김) 1-1’의 경우 일제시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장준하의 가치관과 한국인과 결혼하여 시어머니와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은 이다도시의 가치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별로 다양한 인물을 제시하여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 혹은 글쓴이의 가치관과 학습자의 가치관 혹은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등의 방향으로 전기문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시대 및 사회 상황 파악’을 위해 전기문이 활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가장 많이 제시된 전기문은 김구나 안중근의 전기문 등 ‘일제 강점기’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인물의 행동이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특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관련된 전기문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전기문이 가장 많이 수록된 것으

로 보인다.

과거 전기문끼리 묶어 대단원에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대교(박) 2-1’, ‘천재(노) 2-2’ 등에서는 문학 작품과 함께 수록되어 시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장르 고유의 특성을 넘어서서, 글을 읽을 때는 ‘시대 및 사회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브루너는 인간이 사회활동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관찰학습에 따른 모식화라고 하였다. 인간교육은 늘 훌륭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해서 그들의 성격과 행동을 은연중에 모방하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사람들이 탄생하였다.¹⁰³⁾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통해 제시된 인물들, 소위 ‘위인’들은 학습자들의 가치관 형성 및 자아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여러 교육과정을 거둬들이면서 반복적으로 수록된 전기문 속 위인들의 경우 정전의 위치에서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전기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재 선정의 기준부터 제시되는 학습활동의 성향까지, 모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을 살펴본 결과, 전기문에는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모식화를 담당하는 전기문에 ‘국가를 위한 국민 양성’이라는 가치관이 개입되면서 전기문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가 퇴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교육과정일수록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 교수요목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까지 전기문 속 인물의 입을 빌려 직접적으로 ‘애국심 고취’를 호소하였다. 이는 군사 정권과 독재 정권의 등장으로 국민들을 새로운 정권하에 결속시킬 필요성이 대두한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된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교육과정들과 달리,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보다 따뜻한 인간애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국가를 위한 국민 양성’에서 ‘학습자 개인의 인성교육’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등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103) 이영애, 「전기문 지도방안 연구」, 『어문학 교육』, 제30집, 2005.

또한 교수요목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감소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이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파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점점 국가 이데올로기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창의력, 사고력, 판단력, 상상력, 직관력 등이 강조되면서 갈수록 ‘국가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국어과 성격’은 여전히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 함양’이었지만, 학습자들의 창의성 신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제7차 교육과정에도 이어져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변환하여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위인’으로 선정하였던 애국심 가득한 인물들에 관한 전기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였던 ‘창의성 신장’이 전기문에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국가 이데올로기의 입김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기저에는 여전히 국가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어 ‘위인으로서 합당한 인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 이데올로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문 속 인물들 대부분이 나라를 목숨 바쳐 지킨 장군 혹은 독립운동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으며 이들의 ‘애국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던 중,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과거의 경우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널리 존경받는 등 유명한 인물들에 관한 전기문이 수록되었

으나,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등 익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전기문이 수록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학습 활동을 통해 전기문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과거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던 도구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수준에 맞춘 ‘자료’로의 전환을 꾀한다. 본고에서는 전기문의 활용 양상을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에 근거하여 크게 ‘글쓰기를 통한 삶의 성찰’, ‘올바른 언어 사용 학습’, ‘설득의 기술 훈련’, ‘사회·문화적 맥락 인식’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된 학습 활동은 ‘글쓰기를 통한 삶의 성찰’이다. 학습자들이 전기문을 읽은 후 자신의 체험에 관한 글을 쓰거나 자서전을 써 봄으로써 자신을 성찰하여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이 가장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교과서에서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행동이나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자’로 끝나거나 묻는 말에 대한 답만 간략하게 쓰도록 학습 활동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서전을 쓰거나 편지, 기사문, 광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써 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특히 ‘지학사(방) 1-1’, ‘천재(박) 1-2’, ‘천재(노) 1-2’의 경우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글을 쓰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기문을 활용하여 언어의 소중함과 문법 지식,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등

‘올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내용의 전기문을 통해 ‘설득의 기술’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전기문 속 인물의 가치관을 비교하거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읽는 활동을 하는 등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학습 등도 역시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전기문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기문이 수록된 교과서 33권 중 무려 20권의 교과서가 ‘글쓰기’를 활용한 전기문 학습을 추구하는 등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서전 쓰기’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속담, 격언, 관용구, 사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한 자서전 쓰기’를 내세워 자칫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잠재울 수 있다.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이 획일적인 틀에 가두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서전 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약 조건들은 생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글을 쓰는 활동 외에 ‘올바른 언어 사용’, ‘설득의 기술’, ‘사회 · 문화적 맥락 고려’ 등 기존의 활용 방안들을 보다 활발히 활용하여야 한다. 혹은 연극과 전기문을 접목하여 위인의 입장에서 삶을 관조해보거나 위인의 일생을 게임 스토리로 각색하여 보는 등 새로운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학습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1992. 6. 30 개정
고시.
- 교육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1-2), 2002.
- 교육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3-1), 2002.
- 교육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3-2), 2002.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 1997.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2008.
- 권영민 외, 『국어 1-1』, (주) 새롭교육, 2010.
- 권영민 외, 『국어 1-2』, (주) 새롭교육, 2010.
- 권영민 외, 『국어 2-1』, (주) 새롭교육, 2011.
- 권영민 외, 『국어 2-2』, (주) 새롭교육, 2011.
- 김대행 외, 『국어 1-1』, (주) 천재교육, 2010.
- 김대행 외, 『국어 1-2』, (주) 천재교육, 2010.
- 김상욱 외, 『국어 1-1』, (주) 창작과 비평, 2010.
- 김상욱 외, 『국어 1-2』, (주) 창작과 비평, 2010.
- 김상욱 외, 『국어 2-1』, (주) 창작과 비평, 2011.
- 김상욱 외, 『국어 2-2』, (주) 창작과 비평, 2011
- 김종철 외, 『국어 1-1』, (주) 도서출판 디딤돌, 2010.
- 김종철 외, 『국어 1-1』, (주) 도서출판 디딤돌, 2010.
- 김종철 외, 『국어 2-1』, (주) 도서출판 디딤돌, 2011.
- 김종철 외, 『국어 2-2』, (주) 도서출판 디딤돌, 2011.
- 김형철 외, 『국어 1-1』, (주) 교학사, 2010.

김형철 외, 『국어 1-2』, (주) 교학사, 2010.
남미영 외, 『국어 1-1』, (주) 교학사, 2010.
남미영 외, 『국어 1-2』, (주) 교학사, 2010.
남미영 외, 『국어 2-1』, (주) 교학사, 2011.
남미영 외, 『국어 2-2』, (주) 교학사, 2011.
노미숙 외, 『국어 1-1』, (주) 천재교육, 2010.
노미숙 외, 『국어 1-2』, (주) 천재교육, 2010.
노미숙 외, 『국어 2-1』, (주) 천재교육, 2011.
노미숙 외, 『국어 2-2』, (주) 천재교육, 2011.
문교부, 『중등국어 1-Ⅱ』, 1953.
문교부, 『중등국어 2-Ⅱ』, 1953.
문교부, 『중학국어 Ⅱ-Ⅱ』, 1959.
문교부, 『중학국어 1-1』, 1966.
문교부, 『중학국어 3-2』, 1966.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1), 1979.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2), 1979.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3), 1979.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1-1), 1984.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1-2), 1984.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2-1), 1984.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2-2), 1984.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3-1), 1984.
문교부, 『중학국어』,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 (3-2), 1984.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1-2), 1991.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2-1), 1991.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2-2), 1991.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3-1), 1991.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3-2), 1991.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1-1), 1995.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1-2), 1995.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2-1), 1995.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3-1), 1995.
문교부, 『국어』, 『국어 교사용 지도서』 (3-2), 1995.
문교부,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55. 8. 1 제정 공포.
문교부,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개정 공포.
문교부,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3. 8. 31 개정 공포.
문교부, 「문교부 고시 제422호 중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개정 고시.
문교부,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교육과정」, 1997. 3. 31 개정 고시.
박경신 외, 『국어 1-1』, (주) 대교, 2010.
박경신 외, 『국어 1-2』, (주) 대교, 2010.
박경신 외, 『국어 2-1』, (주) 대교, 2011.
박경신 외, 『국어 2-2』, (주) 대교, 2011.
박영목 외, 『국어 1-1』, (주) 천재교육, 2010.
박영목 외, 『국어 1-2』, (주) 천재교육, 2010.
방민호 외, 『국어 1-1』, (주) 지학사, 2010.
방민호 외, 『국어 1-2』, (주) 지학사, 2010.
방민호 외, 『국어 2-1』, (주) 지학사, 2011.
방민호 외, 『국어 2-2』, (주) 지학사, 2011.
송하춘 외, 『국어 1-1』, (주) 박영사, 2010.
송하춘 외, 『국어 1-2』, (주) 박영사, 2010.

오세영 외, 『국어 1-1』, (주) 해냄에듀, 2010.
오세영 외, 『국어 1-2』, (주) 해냄에듀, 2010.
오세영 외, 『국어 2-1』, (주) 해냄에듀, 2011.
오세영 외, 『국어 2-2』, (주) 해냄에듀, 2011.
왕문용 외, 『국어 1-1』, (주) 대교, 2010.
왕문용 외, 『국어 1-2』, (주) 대교, 2010.
왕문용 외, 『국어 2-1』, (주) 대교, 2011.
왕문용 외, 『국어 2-2』, (주) 대교, 2011.
우한용 외, 『국어 1-1』, (주) 두산동아, 2010.
우한용 외, 『국어 1-2』, (주) 두산동아, 2010.
윤여탁 외, 『국어 1-1』,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0.
윤여탁 외, 『국어 1-2』,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0.
윤여탁 외, 『국어 2-1』,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1.
윤여탁 외, 『국어 2-2』,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1.
윤희원 외, 『국어 1-1』, (주) 금성출판사, 2010.
윤희원 외, 『국어 1-2』, (주) 금성출판사, 2010.
윤희원 외, 『국어 2-1』, (주) 금성출판사, 2011.
윤희원 외, 『국어 2-2』, (주) 금성출판사, 2011.
이남호 외, 『국어 1-1』,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0.
이남호 외, 『국어 1-2』,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0.
이남호 외, 『국어 2-1』,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1.
이남호 외, 『국어 2-2』, (주) 미래엔컬처그룹, 2011.
이삼형 외, 『국어 1-1』, (주) 도서출판 디딤돌, 2010.
이삼형 외, 『국어 1-2』, (주) 도서출판 디딤돌, 2010.
이숙 외, 『국어 1-1』, (주) 유웨이중앙교육, 2010.

이숙 외, 『국어 1-2』, (주) 유웨이중앙교육, 2010.
이승원 외, 『국어 1-1』,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 2010.
이승원 외, 『국어 1-2』,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 2010.
이승원 외, 『국어 2-1』,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 2011.
이승원 외, 『국어 2-2』,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 2011.
이용남 외, 『국어 1-1』, (주) 지학사, 2010.
이용남 외, 『국어 1-2』, (주) 지학사, 2010.
이용남 외, 『국어 2-1』, (주) 지학사, 2011.
이용남 외, 『국어 2-2』, (주) 지학사, 2011.
이충우 외, 『국어 1-1』, (주) 웅진씽크빅, 2010.
이충우 외, 『국어 1-2』, (주) 웅진씽크빅, 2010.
조동길 외, 『국어 1-1』, (주) 비유와 상징, 2010.
조동길 외, 『국어 1-2』, (주) 비유와 상징, 2010.
조동길 외, 『국어 2-1』, (주) 비유와 상징, 2011.
조동길 외, 『국어 2-2』, (주) 비유와 상징, 2011.

2. 단행본

강진호 외, 『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김명석, 『인터넷 소설,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 2009.
_____, 『글쓰기』,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돈암어문학회, 『국어교육과 국어 교과서』, 푸른사상, 200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 1999.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최미숙, 『국어 교육의 이해』, 2009.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2005.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2006.

Alan Shelston, 李京植 번역, 『傳記文學(Biography)』,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9.

J.L. 클리포드, 『예술로서의 전기문학(Biography as an Art)』, 런던, 1962.

3. 학술 논문

김웅식, 「아동 위인전: 진짜 위인전이 되기 위한 조건」, 『기획회의』, 20호(통권 151호), 2005.

김진호, 「국어 교과서의 반민족성」, 『역사비평』, 여름호, 1988.

손영애, 「1-6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 107, 국어교육연구회, 2002.

이영애, 「전기문 지도방안 연구」, 『어문학 교육』, 제30집, 2005.

이종국, 「교과용 도서에 반영된 편자변천 연구」, 『한국 출판학 연구』, 제45호, 2003.

4. 학위 논문

김인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잠재적 의미 - 전기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김현철, 「중학교 전기문 지도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남상구, 「국민학교 국어과 전기문 인물선정의 타당성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박이영, 「초등학생의 위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백안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서민, 「초등학교 고학년 국어(읽기) 교과서 전기문 제재 수록 기준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손순아, 「소집단 협동학습을 이용한 전기문 지도방안」,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손영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제재의 비판적 분석」,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신해숙, 「중학교 쓰기 지도와 수행평가 방안 -전기문 쓰기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영애, 「전기문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정근영, 「초등 국어 전기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鄭令株, 「한국 교육 과정 형성기(1945-1962)의 교육과정 변화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황경임, 「희극적 기법을 활용한 전기문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5. 기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Abstract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biography in the curriculum

Kim, Seong-eun

Maj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yllabus from the period from the 7th to the textbooks, curriculum and examining the results contained in the Biography, Biography, the 'national training for the people' claiming that national ideology was found to be in the works. The trend of the past, education was found in the more direct, closer to 7th curriculum was gradually weakened.

In the meantime, the revised curriculum came to 7th in the national system as an authorized system consists of the conversion was not included in As the existing variety of new figures have emerged in droves. If the outstanding work of the past or sacrifice their lives for the country, including the widely respected on the Biography of famous people, but two more, if the 7th revision of the curriculum can be seen in the surrounding people, to overcome obstacles a people, such as

someone's father or mother figure of the anonymous people can easily relate to the emergence of the learner was concentrated only in the Biography. Meanwhile, with Biography by not attempted a variety of learning activities are utilized historical 'state ideology' had spread from the students' interest and level of tools tailored to the 'data' intends to transition.

In this paper, utilizing aspects of electrical contact and learning objectives and learning activities, based largely on the 'writing', 'correct language', 'persuasive technology', 'social and cultural context under consideration were examined and classified into four. Utilization of these courses are rare in the past that unlike in the past been used variously Biography can see that.

However Biography which contains more than 20 volumes of textbooks, 33 textbook 'writing' the pursuit of learning and utilizing biased Biography is showing there is a limit.

In the future this limitation by supplementing the curriculum writing activities or other activities that actively use the new leverage to seek ways to minimize the involvement of countries such as learner-centered learning in the creative look forward closer to a foot.